은혜로운 품

은혜로운 품

1989

조선 · 평양

인류력사에는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전설들이 수없이 많고많습니다. 유구한 세월 인류가 가꾸고 꽃피워온 그 많은 사랑의 전설속에 인간사랑의 절정을 이루고 인간사랑의 정화로 빛을 뿌리는 위대한 사랑이 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우리 인민에게 베푸시는 한없이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은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한없이 고결한 풍모와 고매한 덕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계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주석의 한생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서사시로 수놓아진 빛나는 한생이며 동지에 대한 숭고한 의리로 엮어진 영광의 로정입니다.

주석께서는 우리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꽃피워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고계십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진실로 사랑하며 그들을 참된 길로 이끌어주시는것은 주석의 확고한 신조이시고 의지이시며 그분께서 지니고계시는 좌우명이십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신의와 지극한 사랑, 숭고한 동지애와 고결한 의리, 한없이 넓은 아량과 뜨거운 포옹력, 천만심장을 하나로 틀어잡는 무한한 견인력은 주석의 고유한 천품과 미덕으로 되고있습니다.

주석께서는 일찌기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람중심의 과학적 세계관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간운명개척의 밝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 세계지배자의 위치에 확고히 올려세우시였습니다.

주석의 위대한 사랑은 그분의 이러한 고유한 천품과 사상에 바탕을 두고 끝없이 흘러나오는것으로 하여 한없이 고결하고 숭고한것입니다.

인민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격차와 사심과 리유가 따로없이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품어주고 이끌어주시는 가장 진실한 사랑이며 사람들의 가슴속에 비낀 한점의 그늘마저 속속들이 헤아리시여 그를 말끔히 가시여주고 밝은 웃음을 채워주시는 가장 웅심깊은 사랑이며 사람들에게 어제와 오늘, 래일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생하는 빛나는 삶을 주시고 그 후대들의 운명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석께서는 민족적 량심이 있고 조국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한없이 넓은 품에 따뜻이 안아주시고 믿어내세워주시며 보람찬 인생의 한길에서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십니다.

주석께서는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걸어온 각이한 사람들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민족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상처를 입고 마음속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새 삶의 밝은 길을 열어주시였을뿐아니라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를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십니다.

주석께서는 또한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르고 신앙과 정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지어 지난날 겨레와 민족을 등지고 살아온 사람들까지도 다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의 가슴속에 참된 애국관과 주체의 인생관을 심어주시고 재생의 봄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여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한길을 걷도록 이끌어주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70만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에게도 은혜로운 사랑을 베푸시여 그들이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한생을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극진히 보호해주고계십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우리 인민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이 살고있는곳 그 어디서나 주석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가 끝없이 꽃피여나고있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주석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끝없는 행복과 영원한 삶의 희열을 안겨주는 무궁한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온 겨레를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근본바탕으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주석의 위대한 심장은 수천만 우리 인민의 심장과 하나의 피줄로 이어져 그분의 품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삶도 보람도 행복도 미래도 생각할수 없는것이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이며 영광속에 사는 우리 인민의 오늘인것입니다.

경애하는 주석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이 있어 우리 인민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인간존중의 상상봉에서 삶에 대한 끝없는 희망을 안고 신심과 환희와 랑만에 넘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있습니다.

온 겨레가 우러러 따르고 만민이 경모하여마지 않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행복이며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흘러가고 세대가 바뀌여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을 이 세상 한끝까지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며 영원히 일편단심 충성을 다해나갈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불변의 신념이며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이 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과거독립운동자들과 오랜 인테리들, 각계 인사들과 종교인들, 남으로 나간 사람 가족들과 입북자들, 귀국동포들과 70만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극히 그 일부만을 사진과 글로 편집한것입니다.

1989년 4월

편 집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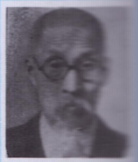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평양교외에 있는 신미리애국렬사릉을 돌아보시였다. (1987년 3월 29일)

과거 독립운동자들을 애국지사라 하시며


리관린


최동오


김월송


량세봉


강진건


리진산


고준택


김명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신미리애국렬사릉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986년 3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독립군영웅》 리관린선생을 접견하시였다. (1979년)



리관린

1897년 1월 22일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출생.

1915년 18살 처녀의 몸으로 총을 메고 반일독립운동에 참가. 조선국민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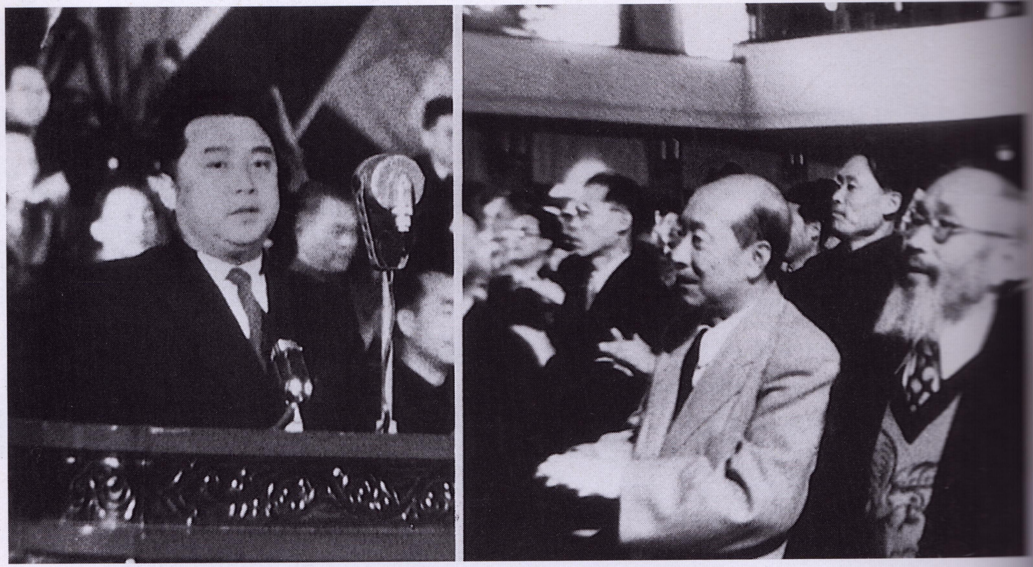
중국 무송과 길림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여러차례 접견.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받으며 여생을 보냄.

1985년 10월 30일 로환으로 사망.

해방전에 일제의 민족적 천대와 억압을 받은 우리 나라의 민족주의자들은 반제적인 혁명성을 가지고있습니다. 더우기 혁명은 어느 특정한 당파나 개인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사상과 리념, 신앙과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든 애국적민주세력이 다같이 건국사업에 나서자는 구호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손잡고나아갈것입니다.

김 일 성



우리 나라를 방문한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주석을 우러르는 최동오선생(오른쪽 두번째, 1956년 10월 25일)



최 동 오

1892년 6월 22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 일제의 조선강점후 반일독립운동에 참가. 중국 남만 화전에서 《화성의숙》의 숙장. 그후 《상해림시정부》 법무부장. 8·15후 서울에서 미군정청 《과도립법의원》 부의장. 남조선《민족자주련맹》상무위원.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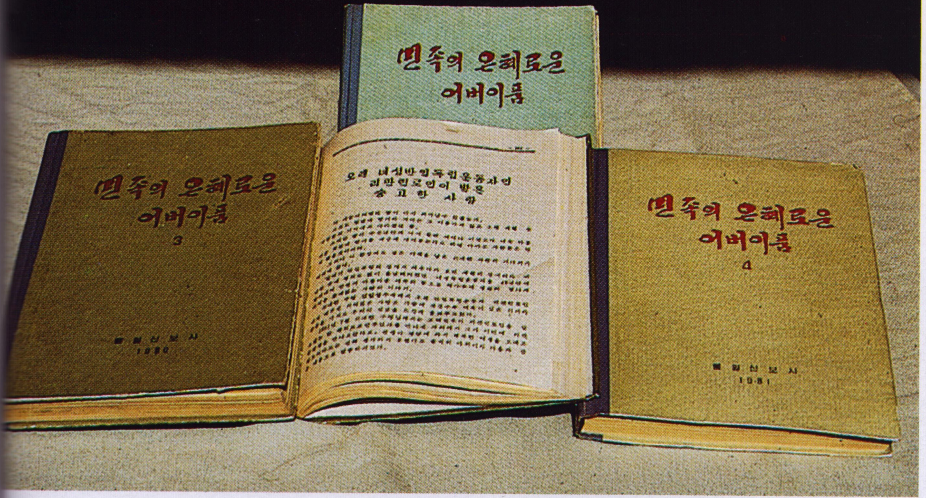
그후 남조선에서 나라의 평화통일과 민족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

1950년 5월 평화통일세력의 일원으로 남조선《국회》선거에 출마했다가 체포되여 옥살이.

1950년 6월 서울해방과 함께 공화국북반부로 입북.

1957년부터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1963년 9월 16일 로환으로 사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활동과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쓴 리관린선생의 회상실기들이 수록된 도서들

수령님의 덕망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일찌기 김형직선생님의 슬하에서 단발머리 꽃나이에 총을 잡고 싸우다가 모진 세월의 풍운을 이겨내지 못하여 때이르게 시들어버린 이 늙은이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수십년 세월을 두고 찾으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한품에 안아주시니 세상에 이런 가슴뜨거운 일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푸시는 은정만도 이를데 없는데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보살피심을 받고보니 저는 진정 만경대혁명일가의 사랑을 저혼자만 독차지하는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제가 받아안은 사랑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합쳐도 비길수 없이 크고 깊은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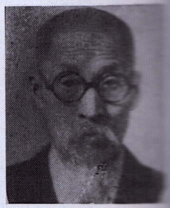
리 관 린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된 리관린선생의 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한 반일독립운동자였던 김월송선생을 따뜻이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48년 4월)



김월송 1877년 5월 15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생.

의병투쟁에 참가, 그후 《상해림시정부》와 정의부에 참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중국 화전에서 독립군관학교 교원.

8·15후 평양에 나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접견, 애국투사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

그후 남조선에 나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활동.

1948년 4월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50년 10월 9일에 장렬한 최후를 마침.

《나는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사람이요. 나는 이미 장군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었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 남에 있는 내 아들 덕신이가 지금 미국놈과 같이 춤추고있는데 그애도 어느때 가서는 장군님을 따를것이요.》

최 동 오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여 축하연설을 하는 최동오선생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된 부친 최동오선생의 묘를 찾은 최덕신선생



청년시절에 조선독립의 뜻을 품고 국내와 해외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저의 아버지(김월송)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에 돌아오고보니 그처럼 나라를 못잊어하시던 장군님의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정말 그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군님, 갈길을 몰라 헤매이던 저를 구원해주시고 이렇듯 고귀한 은정을 베풀어주시니 내 이제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장군님의 이 은덕에 보답하는 길에서 늙은 몸이지만 여생을 바쳐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바로 김일성장군님께서 호소하신 민족단합의 길뿐이요. 장군님의 령도를 따라야 우리 나라가 번영하고 민족이 행복할수 있소.

나는 장군님을 위해 나의 여생을 바치려고 하오.》

《장군님, 눈에 흙이 들어간들 장군님의 이 믿음을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직로야, 너도 어서 커서 장군님의 훌륭한 전사가 되여야 한다.》

1950년 10월 어느날 밤 금강산휴양지에서 여생을 보내던 저의 아버지는 자기를 묶으려고 달려든 적들을 추상같은 호령으로 물리치고 떨리는 붓을 놀리며 장군님께 한생의 총화와 감사의 정이 넘쳐흐르는 편지를 썼다. 그 길로 구룡연폭포가에 나간 아버지는 두팔을 벌려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검푸른 물속에 몸을 던져 장렬한 최후를 마치였다.

아들 김직로

사업에 열중하고있는 김직로, 그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일하고있다.





《월송선생은 해방후 조국에 돌아와 년로한 몸으로 나라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였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적 절개를 훌륭히 지켜낸 참다운 애국자입니다.》

김 일 성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된 애국투사후원회 부위원장이였던 김월송선생의 묘

김월송선생의 아들 김직로(오른쪽에서 두번째)와 그의 가족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량세봉의 부인 윤재순에게 팔갑상을 보내주시였다.



량세봉의 손자 량철수, 그는 작가이다.



량세봉의 딸 량의숙, 그는 평양종합방직공장에서 책임일군으로 일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녀성항일혁명투사들과 독립운동자 량세봉의 안해 윤재순(앞줄 오른쪽 첫번째)을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58년 8월 16일)



량 세 봉

1896년 7월 15일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출생.

1919년 3·1운동후 의병천마산대 선봉장.

1920년 광복군사령부에서 활동, 륙군주만참의부 소대장.

1923년에 중대장, 그후 조선혁명당 간부로 활동.

1925년 독립운동단체 정의부의 군사위원.

그후 남만의 조선혁명군(독립군) 사령.

1934년 9월 20일 희생.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오른쪽 첫번째 강진건)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 개원식에 참석하시여 꽃다발을 받으시였다. (1947년 10월 12일)



강진건

1885년 1월 6일 함경남도 리원군에서 출생.

1919년 3·1운동이후 중국 만주 장백일대에서 독립운동에 참가.

1921년 독립군무장단을 통합한 《광정단》 군사부장.

1923년 일제에게 체포되여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옥살이.

8·15해방후 함경북도 농민동맹 위원장.

1946년 2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접견.

그후 조선농민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토지개혁법령초안작성위원회 위원장, 북조선림시 인민위원회 위원, 북조선인민회의 의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1963년 5월 15일 병으로 사망.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 삼가 올릴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는 량세봉선생의 안해와 딸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전에 민족주의자로서 중국 남만에서 독립군사령을 지내던 저의 주인을 몸소 따뜻이 포섭하시여 광복의 한길로 손잡아이끌어주시였으며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우리 유가족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십니다.

1960년 3월 수령님께서는 저를 친히 만나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제는 량사령의 유골을 조국땅에 모셔오게 합시다. 땅이 좋은데 모시고 비석도 잘해 세웁시다.》

참말 고맙기 그지없는 말씀이였습니다.

그해 6월 그분께서는 친히 사람들을 보내시여 모셔온 저의 주인의 유골을 풍치좋은곳에 안치하게 하시고 큰 대리석묘비까지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고 1968년 9월에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그에게 항일혁명렬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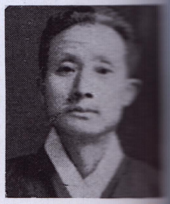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 고귀한 칭호속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바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다 넓으신 한품에 안으시여 광명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이 깃들어있습니다.



안해 윤재순

《아까운분을 잃었소. 병을 고쳐보려고 할수 있는껏 다해보았으나 고칠수 없는 병이였소. 리진산선생은 오래동안 반일투쟁을 하여온분이였소. 해방후에도 일을 잘하였소. 그의 서거와 관련하여 신문에 부고도 내고 장례식도 사회장으로 해야 하겠소. 그의 령구를 련광정에 안치하고 거기서 추도식을 성대히 하도록 합시다.》

김 일 성



리 진 산

1883년 6월 13일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

1914년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중국 동북으로 망명.

남만 류하에서 《한족회》 법무부장.

그후 《상해림시정부》의 《의정원》 의원, 남만 《한족회》 대표로 활동.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에 참석, 리승만을 《림정》에서 당장 축출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림정》과 결별.

다시 류하로 돌아와 《정의부》 법무위원장을 함, 이무렵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 반일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을 접견.

1946년 6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할빈에서 평양으로 나와 장군님을 접견.

1946년 12월부터 조선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947년 3월 22일 병으로 사망.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강진건선생의 부인과 자손들

《좋은분을 잃었소.… 강진건선생은 오래동안 반일투쟁을 하여온분이였소. 일제시기에 감옥생활을 제일 오래 한분이였소. 해방후에도 불편한 몸으로 많은 수고를 했지요. 강진건선생의 서거와 관련하여 신문에 부고도 내고 장례식도 국장으로 해야 하겠소. 선생의 령구를 좋은 장소에 안치하고 추도식을 성대히 하도록 합시다.》

김 일 성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된 강진건선생의 묘를 찾은 고인의 가족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고준택선생을 비롯한 당 및 정부대표단을 친솔하시고 사회주의나라들을 친선방문하시였다. (1956년 6월)



고 준 택

1896년 2월 18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 3·1운동후 중국 동북 관전현에서 조선청년단련합회 성원으로 활동. 1920년 2월 의주, 철산, 선천 일대에서 무장활동. 그후 상해에서 《독립신문》발행에 관여. 《병인의용대》를 뭇고 활동. 1926년 6월 조선총독을 죽이려다가 체포되여 7년간 옥살이, 출옥후 신의주와 선천에서 로동. 해방후 평안북도 선천군 보안서장. 1946년 봄에 조선민주당에 입당, 그후 민주당 평안북도 위원장, 북조선인민회의 의원,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948년 9월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후 조선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후 림업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성원. 1977년 3월 6일 로환으로 사망.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된 리진산선생의 묘





리진산선생이 생전에 가족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장군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인품이 유하시고 포용력이 크실가. 정말 장군님의 공산주의는 우리가 알던 공산주의와는 다르오. 과거 엠엘파나 서상파가 부르짖던건 진짜공산주의가 아니였소. 공산주의가 이렇게 전민족을 위한것이라면 어느 누가 그 길을 따라나서지 않겠소.》

리 진 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사랑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고있는 리진산선생의 자손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크나큰 은덕아래 행복을 누리고있는 고준택선생의 부인과 자손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고준택의 령전에 보내주신 화환



생전에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있는 고준택선생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된 고준택선생의 묘



저의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우리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는 지난날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대의원이 되여 왔더구나. 그 사람들은 나를 보자 아니 이게 〈피스톨청년〉이 아니요?! 자네가 대의원이 된걸 보니 정말 우리 공화국이 좋긴 좋구만 하면서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더라. 우리는 나라를 찾자고 향방없이 헤매였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광복과 건국의 숙원을 이루어주시고 한일도 없는 우리들을 국사에까지 참여하게 하여주시였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드리겠는가고 모두가 눈시울을 적시였다. 참으로 **김일성**장군님처럼 품이 넓으시고 도량이 크시고 사랑이 뜨거우신분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버지는 비록 나이가 든 몸이지만 여생을 다 바쳐 장군님을 받들어 충실히 일하겠다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날 반일의 열정은 있어도 독립의 진로를 알지 못해 모험과 시련의 흙탕길을 헤매던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참다운 애국의 삶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빛나는 한생,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최상의 영예와 행복이 있으며 조국과 더불어 길이 빛나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아들 고병훈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있는 김명준선생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는 김명준선생

《동무도 알겠지만 명준동무는 빼앗긴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군에 들어갔다가 나를 찾아온 동무요. 나는 그 동무의 애국적량심을 믿고 오늘까지 아끼며 키워왔습니다.

동무는 명준동무에게서 배우고 또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명준동무의 건강을 잘 돌봐주시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1946년에 김명준의 안해에게 하신 말씀



김 명 준

1917년 8월 17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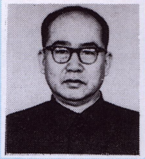
1934년에 독립군에 입대.

1938년 11월에 독립군에서 나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항일혁명투쟁에 참가.

1945년 8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에 돌아옴. 새 조국 건설에 헌신.

1955년부터 대학에서 공부, 졸업후 현재까지 사회안전부의 중요한 직책에서 사업.

오랜 인테리들을 굳게 믿으시고


정준택


강영창


리승기


계응상


리호림


리기영


김보형


임록재


원홍구


리활

민족주의사상의 탁류속에서 조국광복의 참다운 길을 찾지 못하여 몸부림치던 독립군병사였던 저를 한품에 안으시여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신임과 대해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몇십권의 책에도 다 담지 못할것이다.

제가 민족주의군대인 독립군에 있다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온것은 1938년 11월 어느날 백설로 뒤덮인 몽강현 남패자에서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장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친절히 가르쳐주시며 보람찬 혁명의 길로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살아온 제가 오늘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뜻한 보살피심을 받게 되였으니 이런 무상의 영광, 최상의 행복이 또 어데 있겠는가.

참으로 민족애가 있고 조국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품에 안아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며 행복과 광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 숭고한 의리와 동지애에 저는 그저 머리숙여질뿐이다.

김 명 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배려로 김명준선생이 받은 선물명세의 일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평양시 승호지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준택 전 부수상에게 사업방향을 가르쳐주시였다. (1968년 5월)



정 준 택

1911년 1월 12일 경기도 부평군에서 출생. 해방전 서울고등공업학교 졸업, 일본 미쯔비시광업회사 효고현 이꾸노광산 기사.

1939년부터 중국 만주광산주식회사 남만 분수툰광산 기사.

1945년 4월부터 당시 황해도 만년광산 선광기사.

1945년 11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음. 북조선 5도총국 산업국장.

1946년부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산업국장, 북조선인민위원회 계획국장.

1948년 9월부터 국가계획위원회 초대위원장, 그후 화학공업상, 내각부수상.

1972년 12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1948년 9월 제1기로부터 제5기에 이르기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48년 3월 조선로동당 제2차

우리는 빨찌산투쟁을 할 때부터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을 해방하는 날 애국적이며 량심적인 인테리들과도 새 조국 건설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나갈것을 생각하였소.… 선진적인 지식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대담하게 공산주의자로 키워서 혁명을 끝까지 함께 해나가자는것이 바로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인테리정책이요.

김 일 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돌아간 정준택 전 부총리의 가슴에 공화국영웅메달을 손수 달아주시였다. (1973년 1월 12일)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 우리 당은 하나의 재능있는 인테리를 잃은것이 아니라 혁명화된 훌륭한 혁명가를 잃었기때문에 이처럼 가슴아파하는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수령을 알고 당을 알고 혁명투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였다. 너희 아버지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잘 싸웠다.

너희 아버지는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을 통하여 실증해주었다. 인테리혁명화의 모범이였다. (정준택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김 일 성



가족들과 함께 있는 정준택(앞줄 오른쪽 두번째, 1969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사업하고있는 정준택 전 부총리



대회와 그후 제3차, 제4차, 제5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됨.

1969년 9월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1973년 1월 11일 병으로 사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정준택 전 부총리의 유가족들을 접견하시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1973년 1월)

저의 주인(정준택)은 8·15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가르치심과 극진한 보살피심 속에서 값있고 보람찬 삶을 누리다가 197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의 주인은 늘 나에게 이렇게 말하군하였습니다.

《참으로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오. 장군님은 나에게 보람찬 삶과 투쟁의 길을 열어주신 은인이시며 매사에 크게 잘못이 없도록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스승이시오. 나는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내 힘껏 그분의 가르치심대로만 일하겠소. 이것이 나의 신조요.》

그는 정말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높은 뜻을 실현하는 충성의 한길에서 값있게 살았습니다.

어제날 평범한 기술자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혁명가로 자라나 당과 국가의 중책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한생을 바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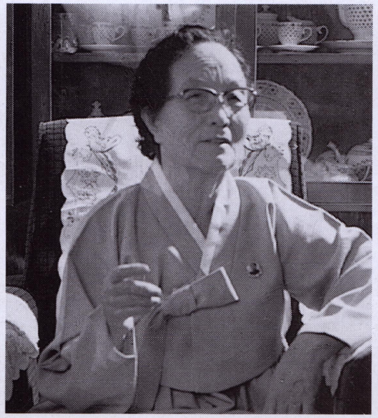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사업과 생활에서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극진히 아끼고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르면 깨우쳐주시고 뒤진 걸음이면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마음속에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시며 저의 주인을 참다운 애국자, 공산주의자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우리 주인처럼 근 30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살피심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온 행복한 사람이 어데 있겠습니까.

주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친히 저의 주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여 그의 가슴우에 손수 금별메달까지 달아주시며 우리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시였으니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을 천만년 세월이 흘러간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안해 김정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강영창선생과 함께 남포지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957년 6월)



강영창

1912년 10월 1일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출생.

해방전 려순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미쯔비시전기회사에서 기사로 근무.

해방후 1945년말 북반부로 들어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강선제강소(당시 이름)의 기사장으로 사업.

1947년 9월 강선제강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음, 그후 금속관리국 기사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1960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1965년 8월 2일 병으로 사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정준택 전 부총리의 부인 김정원에게 진갑상을 보내주시였다.



정준택 전 부총리의 부인은 아들딸들에게 아버지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 충성다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있다.

《나는 지금도 늘 강영창동무에 대하여 회상하는데 그는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사람이였습니다. 강영창동무는 생활을 아주 검박하게 하였으며 당과 인민을 위하여 한가지 일이라도 더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나는 강영창동무가 혁명을 위하여 더 일을 하지 못하고 일찍 죽은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김 일 성

아들, 딸,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는 강영창의 부인 류기철(앞줄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강영창선생의 안내를 받으시며 김책제철소(지금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1954년 7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세상을 떠난 과학원 강영창원장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유가족들을 찾으시여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1973년 1월)

저의 남편 강영창은 일제시기에 대학공부를 한 오랜 인테리였습니다. 20년동안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과학자로서 보람찬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의 남편과 우리 가정에 베풀어주신 사랑과 배려는 참으로 한량이 없습니다.

저의 남편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학문을 익히고 일을 배우며 살아가는것을 한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더욱 아끼고 사랑해주시였습니다.

한 평범한 오랜 인테리를 큰 공장과 중앙기관의 기사장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과학원 원장으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였으니 어버이수령님의 품보다 더 따사롭고 행복한 품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그분의 이러한 사랑과 배려는 오랜 인테리들모두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이며 배려입니다.

안해 류기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리승기박사에게 사업방향을 가르쳐 주시였다. (1968년 6월)

《…동무들의 연구사업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끼는것이 없소. 자재도 자금도 요구하는대로 해결해주도록 하겠소. 그러니까 아무걱정도 하지 말고 대담하게 해보오. 시험공장이니만큼 우선 다 해놓고 안되면 또 고칩시다.

그렇게 해서 하루속히 비날론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완성해야겠소.

나는 동무들이 꼭 그렇게 할수 있다고 굳게 믿고있소.》

1958년 6월 24일 비날론중간시험공장을 돌아보시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말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리승기박사를 친히 부르시여 그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1960년 8월)



리 승 기

1905년 10월 1일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출생.

해방전에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 일본 마쯔야마고등학교, 교또대학을 각각 졸업.

1931년 4월부터 일본 교또제국대학 화학연구소 연구생, 강사, 조교수.

1945년 9월부터 서울 경성대학 교수.

1947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1950년 8월 공화국북반부로 입북, 그후 화학공업성 화학공업연구소 연구사.

1961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과학원 함흥분원 원장.

1957년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현재까지 대의원.

로력영웅, 원사, 교수, 박사.

2. 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2.8비날론공장**(지금은 2.8비날론련합기업소)을 현지지도하시고 리승기박사가 연구한 비날론솜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좋은 옷을 해입힐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1961년 10월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리승기박사에게 친히 보내주신
친필 편지와 산삼.



정원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는 리승기박사와 그의 부인



과학연구사업에 열중하고있는 리승기박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리승기박사에게
팔갑상을 보내주시였다.

《계응상선생은 우리 나라 과학발전에 공로가 있습니다.

계응상선생이 무엇을 탔던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이고 박사, 교수, 원사이고 인민상계관인이지, 우리 나라의 최고 영예는 거의 다 받았구만.

내 생각에는 로력영웅칭호를 주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963년 12월 21일 농업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말씀



계응상

[illegible]월 27일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

해방전 서울 오성중학교 졸업후 정주군 오산중학교에서 교원, 그후 일본 우에다 잠사전문학교와 규슈제국대학을 거쳐 학사원을 나옴.

중국 광주중개농공학교와 중산대학 농학원에서 교원, 그후 일본 오끼나와, 후꾸오까 등지로 《방랑하는 누에학자》가 됨.

8·15후 남조선 수원농사시험장 장장.

1946년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원.

1946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음, 그후 과학연구사업에 열중, 과학원 잠학연구소 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원사, 교수, 박사, 인민상계관인, 로력영웅.

1967년 4월 24일 사망.



대가정을 이룬 리승기박사의 자손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제가 과학탐구의 길을 걸어온지도 어언 40년세월이 가까와옵니다.

돌이켜보면 일제와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에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굴욕과 멸시만을 강요당하던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조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과학자로 성장하여 우리 나라 과학발전에 적으나마 이바지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과학자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몇십권의 책을 써도 모자랄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고 불사약이 되여 80을 넘긴 나이에도 저는 왕성한 패기와 열정을 안고 주체과학의 넓은 길을 걷고있습니다. 한없이 자애롭고 인정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사로운 손길이 없었던들 어찌 저의 삶이 오늘처럼 빛나게 이어질수 있고 버림받던 저의 지혜가 오늘처럼 그렇게 활짝 꽃피고 열매를 맺을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과학자도 지닐수 없는 삶의 보람과 최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비하면 저는 해놓은 일보다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늘 생각하고있을뿐입니다.

리승기



실험실에서 잠학연구에 열중하고있는 계응상박사



계응상박사가 새로 연구완성한 가둑누에고치

계응상박사의 잠학연구실 외경



계응상박사는 아주 주체가 선 훌륭한 과학자이며 매우 량심적인 과학자입니다.

김 일 성



주체적인 잠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계응상박사



계응상박사가 소장으로 일하던 잠학연구소





계응상선생이 박사학위와 함께 수여받은 박사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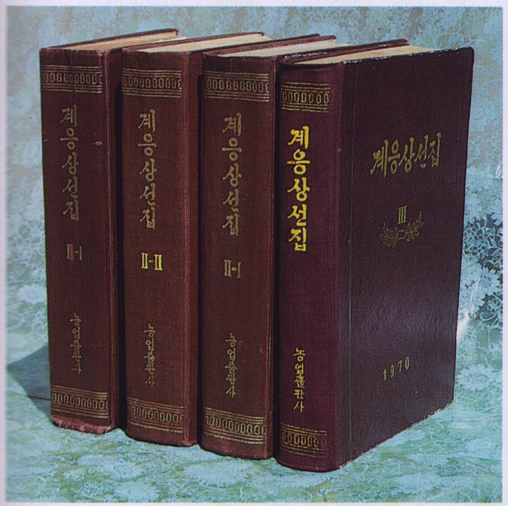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된 계응상박사의 묘를 찾은 고인의 자손들



《내 나이 70이 되였소. 그러나 나는 늙지 않았소.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이오. 수령님의 전사로 살아가는 이 행복, 이 자랑이 나를 끝없이 젊게 만들어주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드는것 이것만이 우리모두의 참다운 삶이요.》

계 응 상

《계응상선집》의 일부





해외에 나가 주체적인 잠학연구성과에 대하여 소개하고있는 계응상박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중앙의 큰 병원 원장사업을 하고있는 리호림선생을 접견하시고 사업방향을 가르쳐주시였다.(1969년 3월 3일)



리호림

1907년 10월 충청북도 제천군(당시)에서 출생.

해방전 서울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교또부립의학대학 졸업, 오사까 제국대학 대학원을 졸업.

1940년 4월 서울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원, 그후 《리호림병원》을 경영.

8·15후 1946년 11월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원, 그해 12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음.

1947년 북조선보건련맹 위원장.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

1955년부터 중앙의 큰 병원 원장, 현재 고문원장.

과학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모란봉에 올라 즐거운 휴식을 하고있는 계응상박사의 부인과 자손들

저의 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속에 한생을 잠학연구에 바친 자연과학자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의 아버지에게 친히 보내여주신 사랑의 선물들인 여러가지 연구 설비와 자료들이 정중히 보존되여있습니다. 그리고 서가에는 수령님의 특별한 관심속에 출판된 《계응상선집》이 꽂혀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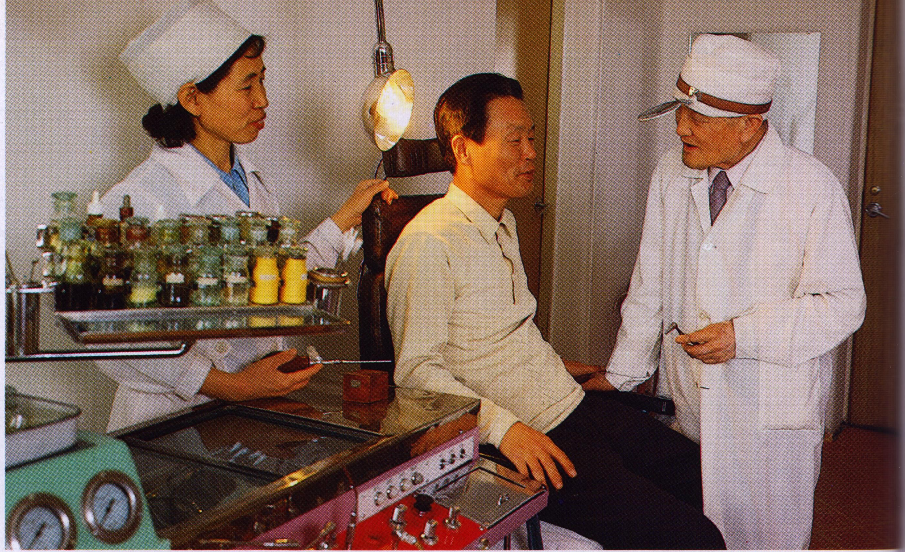
나는 아버지의 책상을 마주할 때마다 이름없던 과학자를 한품에 안으시여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과학자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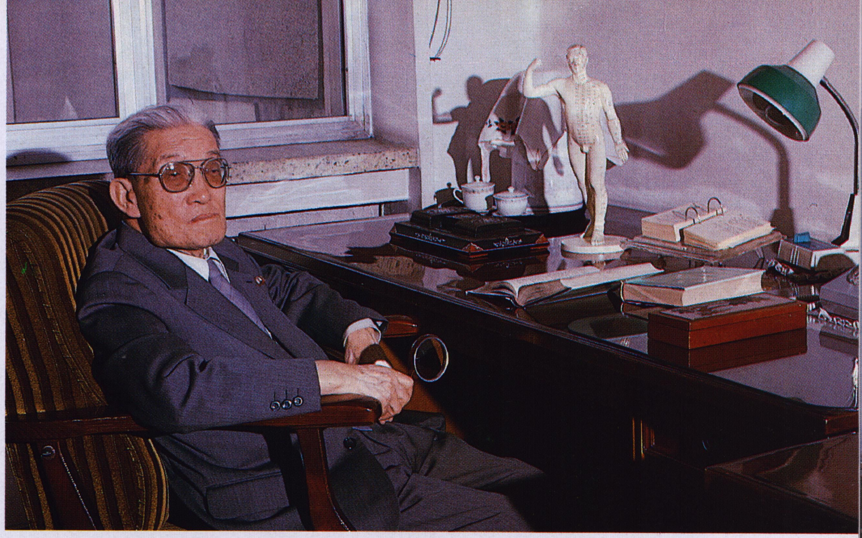
저의 아버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어버이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속에 길이 살아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과학자들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새기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나라의 잠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보람찬 한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할 결의를 새롭게 다집니다.

아들 계원삼

환자치료에 열중하고있는 리호림선생





중앙의 큰 병원 고문원장으로 일하고있는 리호림선생



가족들과 함께 후식의 한때를 즐기고있는 리호림선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직후 작가 리기영선생을 친히 접견하시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시였으며 그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1946년)



리기영

1895년 5월 29일 충청남도 천안군에서 출생. 1920년대초 사회평론잡지《조선지광》기자.

1924년 처녀작《오빠의 비밀편지》발표, 그후 단편소설《제지공장》, 《원보》, 장편소설《고향》등 창작발표.

1943년 3월 일제의 탄압을 피해 문단을 떠나 강원도 내금강에서 농사.

해방후 철원군대표로 강원도인민위원회결성에 참가.

1946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 1947년 북조선인민회의 의원.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그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우리 나라의 첫 문학학사, 인민상계관인, 《김일성상》수상자.

1984년 3월 9일 사망.

8·15직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세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암담한 식민지사회에서 개인병원을 경영하며 저혼자 살아가기에만 급급하던 나를 인민의 교육자, 과학자, 큰 병원의 원장으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실로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나는 여기에서 1967년 10월 나의 환갑때에 있은 이야기만을 적으려고 한다.

한 일군이 우리 집에 찾아와《어버이수령님께서 원장선생님의 환갑을 축하하여 선물을 보내주시였습니다.》라고 하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북받쳐오르는 격정으로 하여 아무말도 못하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나의 환갑생일까지 잊지 않으시고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니 그 고마운 은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었겠는가. 나는 끝내 솟구치는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영광과 행복만을 누리고있는 한 의학자의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였다.

이튿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환갑상을 받고 자신이 걸어온 60평생을 돌이켜보느라니 불현듯 남녘의 친지들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내가 누리고있는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만약 내가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 행복, 이 영광은 꿈에도 상상할수 없었을것이다.

리 호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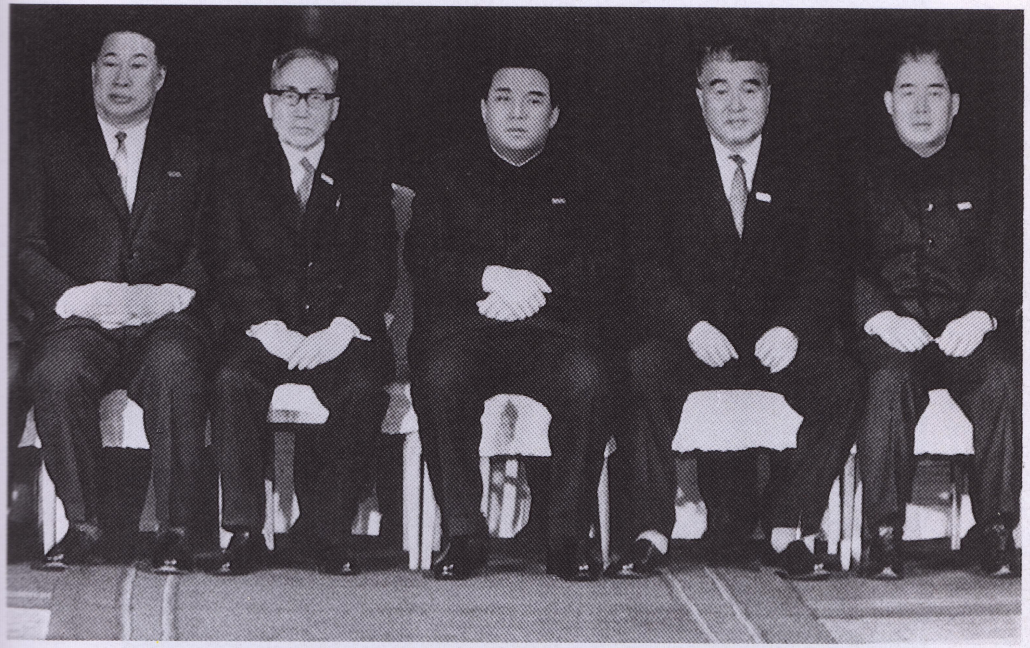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리호림선생에게 팔갑상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작가 리기영선생에게 보내주신 선물들의 일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작가
리기영선생에게 친히 보내주신 회중시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면서 리기영선생을 늙으신분이라고 친히 앞좌석에 앉혀주시였다.(왼쪽 두번째, 1967년 12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가 방금 끝났을 때였다.

새로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내각성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게 되였다.

좌석 맨 앞줄에 의자를 한줄로 놓고 한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앉으시고 좌우로 당과 국가의 간부들이 앉고 리기영선생은 그 뒤줄에 서게 되였다.

그런데 좌석을 둘러보시던 주석께서는 리기영선생을 보시자 《로인을 서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서 나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는 의자를 가져다 여기 놓으라고 하시며 자신께서 앉으실 의자를 한쪽으로 옮겨놓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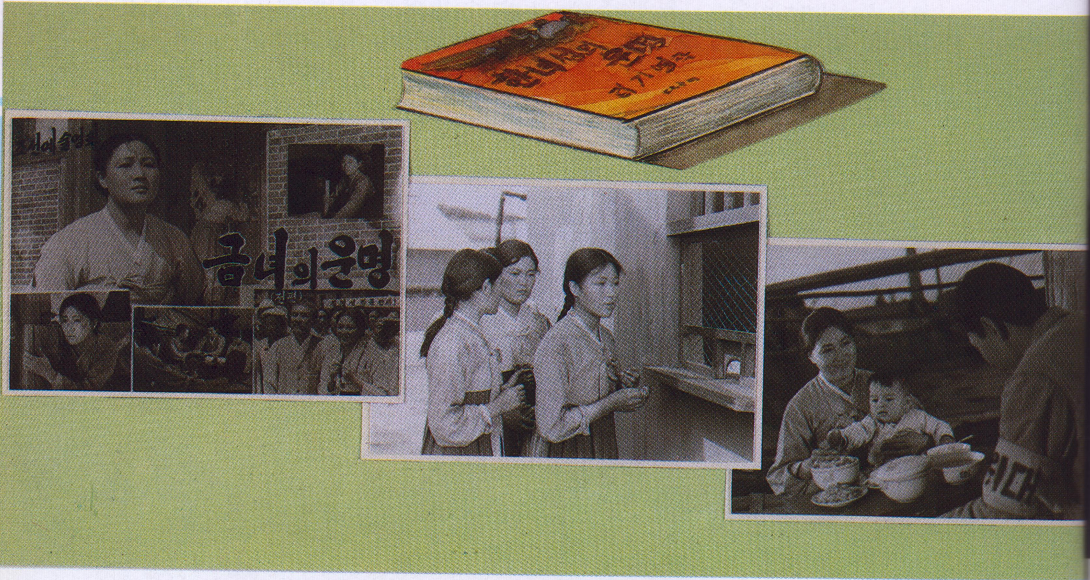
그분의 고귀한 은정을 받아안게 된 그 순간 리기영선생은 너무도 황송하여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한채 그분곁에 앉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리기영선생이 쓴 소설들의 일부



소설창작에 열중하고있는 리기영선생



리기영선생이 쓴 소설을 각색한 예술영화화면들의 일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50돐을 맞아 그분께 올릴 축하편지를 쓰고있는 리기영선생



소설애독가들속에 있는 리기영선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동명왕릉을 돌아보시고 력사학박사 김석형 선생에게 력사자료고증사업을 잘하며 고구려시기의 력사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자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1979년 5월 15일)



김석형

1915년 11월 7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출생.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제국대학을 졸업.

1940년부터 서울 양정중학교 교원, 반일조직사건으로 8·15까지 옥살이.

8·15후 서울사범대학 교원, 그후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옴.

1946년 8월부터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1956년 2월부터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1979년부터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과학원 원사, 교수, 박사.

해외에 나가 활동하고있는 리기영선생



이 세상에는 많은 행복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일하는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나라를 잃고 36년간 일제의 식민지노예살이를 하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나는 인간으로서, 작가로서 다시 태여났다. 이것을 생각할 때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첫시기부터 나와 같은 평범한 작가에게 인민을 위한 창작의 필봉을 쥐여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가르쳐주시며 보살펴주신 그 고마운 은정이 새로운 크기와 넓이를 가지고 가슴가득 안겨온다.

이 은혜, 이 고마움에 무엇으로 보답을 올려야 하는가. 사람이란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 깊어진다고 한다. 나도 해가 갈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더욱 사무치게 느끼고있다.

나에게 옳바른 세계관을 세워주시고 혁명하는 인간으로 꾸준히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스승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는 여한이 없이 사는 날까지 그분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창작의 붓을 달릴것이다.

리기영





어느 한 나라의 력사학자들의
모임에 참가한 김석형박사

어느 한 나라의 력사고적을
고증하고있는 김석형박사

외국에서 력사자료를 수집하고있는 김석형박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배려로
김석형박사가 받은 선물명세의 일부



김석형박사가 받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증과
대회 대표증, 참가증들의 일부



휴식의 한때, 손자가 속삭이는 말을 귀담아들으며 즐거워하는 김석형박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민족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할수 있는 곧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통찰력으로 지난날 력대 반동사가들에 의하여 심히 외곡되였던 력사적 문제들을 바로잡아주시였을뿐아니라 채 연구되지 못했거나 공백으로 남아있던 수많은 문제들까지 완벽하게 해명해주시고 개척해주시였다. 바로 그분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조선사람의 기원문제와 우리 나라의 원시사회문제, 고조선과 우리 나라 노예사회문제, 3국시기의 고구려의 지위와 위력 문제, 고구려의 살수전쟁의 위치문제, 김옥균의 《갑신정변》과 우리 나라에서 부르죠아혁명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주체적 립장에서 새롭게 해명되고 정리체계화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주석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슬기롭고 유구한 력사가 더욱 찬란히 빛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오늘 우리 나라 력사학자들은 권위있고 위력한 부대로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력사과학은 앞으로도 주체의 궤도따라 줄기찬 발전의 길을 걸어갈것이다.

김석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김석형박사에게 진갑상을 보내주시였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가진 민족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빛발아래서만 비로소 조선력사는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력사로 되였다.



서재에서 조선력사자료를 연구하고있는 김석형박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임록재박사에게 친히 보내주신 승용차

아들 임순철에게 우리 나라에서 수삼나무가 다시 번성하게 된 래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임록재원장



임록재원장이 끊임없는 사색과 연구를 통하여 육종해낸 식물원의 무성한 나무숲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중앙식물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중앙식물원 임록재원장의 사업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1973년 11월)



임록재

1920년 4월 24일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출생.

황주군 청룡보통학교, 황주원예학교를 졸업.

그후 일본대학 원예강좌를 졸업.

1943년 9월부터 경성제국대학 생학연구소 조수.

8·15후 서울대학교 연구소 연구원.

1946년 11월 북반부에 들어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1950년 10월부터 조선인민군 군의국 위생시험소 소장.

1951년 6월부터 평양시 위생방역소 소장.

1953년 7월부터 평양의학대학 교수, 그후 과학원 생물학연구소 과학부소장.

1959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식물원 원장 겸 산림과학원 원장.

원사, 교수, 박사, 인민과학자, 로력영웅.

1969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임록재원장이 집필한 저서들의 일부

이 세상에는 과학연구에 한생을 바치고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수령으로 모시고 그분의 품속에서 과학을 탐구하는 저희들처럼 행복한 과학자는 없습니다.

어제날 한갖 식물학도에 불과했던 제가 오늘은 중앙식물원 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교수, 박사로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이 아니였더라면 오늘의 이 행복에 대하여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의 현명하고도 따뜻한 손길아래서 저는 인민의 참된 과학자로 자라났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를 참다운 과학연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을뿐아니라 그 길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그리고 오래오래 자기의 정력과 지혜를 발휘할수 있도록 생활을 살뜰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끊임없는 가르치심에 의하여 참다운 과학의 길을 걷고있는 복받은 과학자이며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보살피심 속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고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나이 이제는 70고개를 바라보고있습니다. 하지만 과학탐구에 대한 열정만은 남못지 않게 불타고있습니다.

저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이 열정을 잃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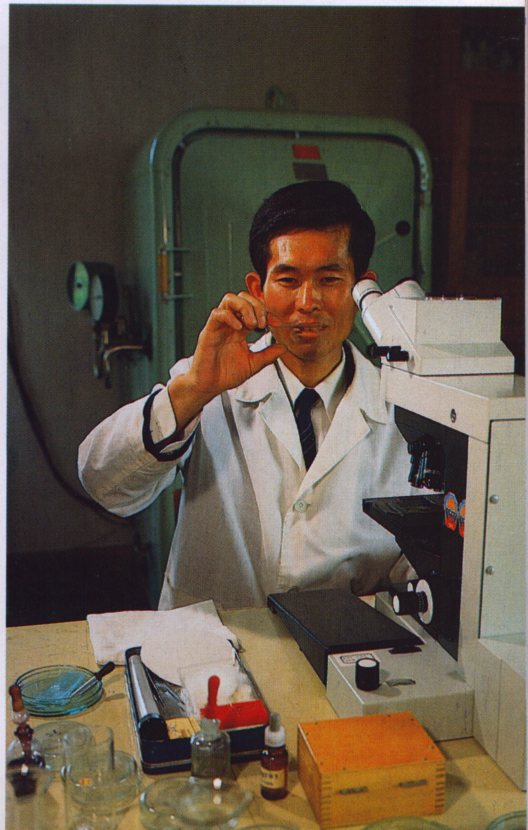
임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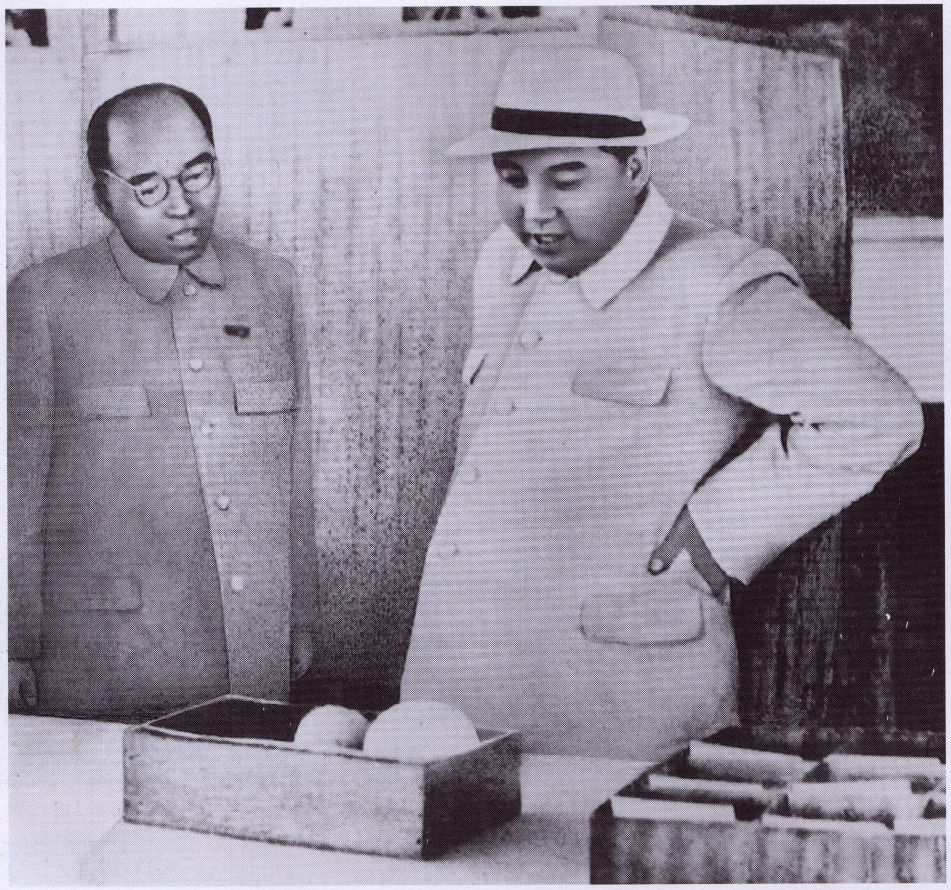
연구사업에 열중하고있는 임록재원장



미술부문에서 일하고있는 딸 임화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식물학자가 된 아들 임순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과학원생물학연구소 소장인 원홍구박사의 연구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1955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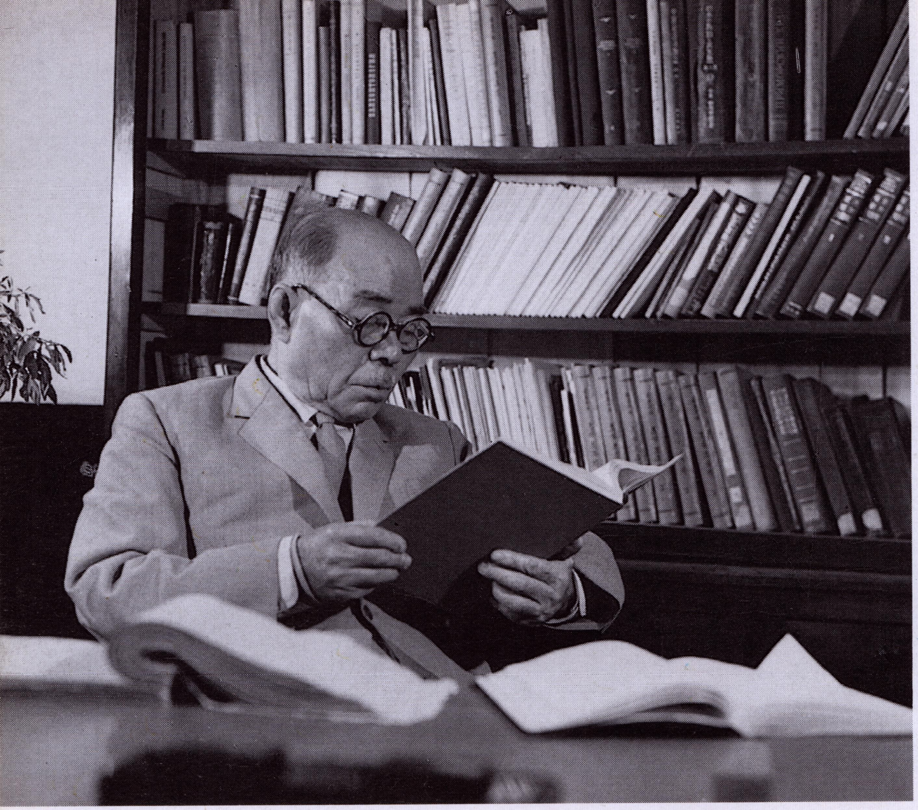


원 홍 구

1888년 4월 8일 평안북도 구성군에서 출생. 1919년 3·1운동에 참가. 1920년 일본 가고시마고등농업학교 졸업. 1925년부터 경기도 수원농사시험장 기사. 1928년부터 개성고등농업학교 교원, 이때부터 생물표본수집과 생물학연구 시작. 1930년부터 평안남도 안주농업학교 교원. 1940년부터 함흥사립영생고등녀학교 교장. 1942년부터 북청농업학교교원. 8·15해방후 평안남도 덕천농업학교 교장. 1946년 강서농업학교 교장. 1947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 강좌장, 학부장. 1948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52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생물학연구소 소장. 1954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



중앙식물원을 찾은 안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임록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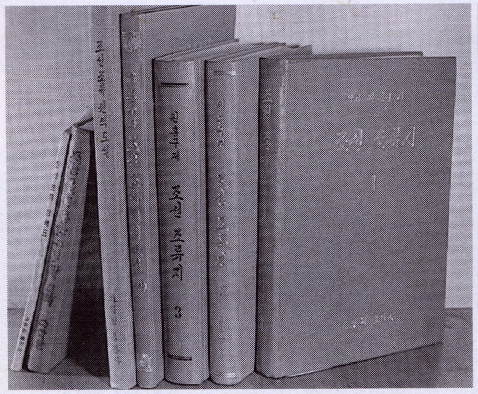
서재에서 조류에 대하여 연구하고있는 원홍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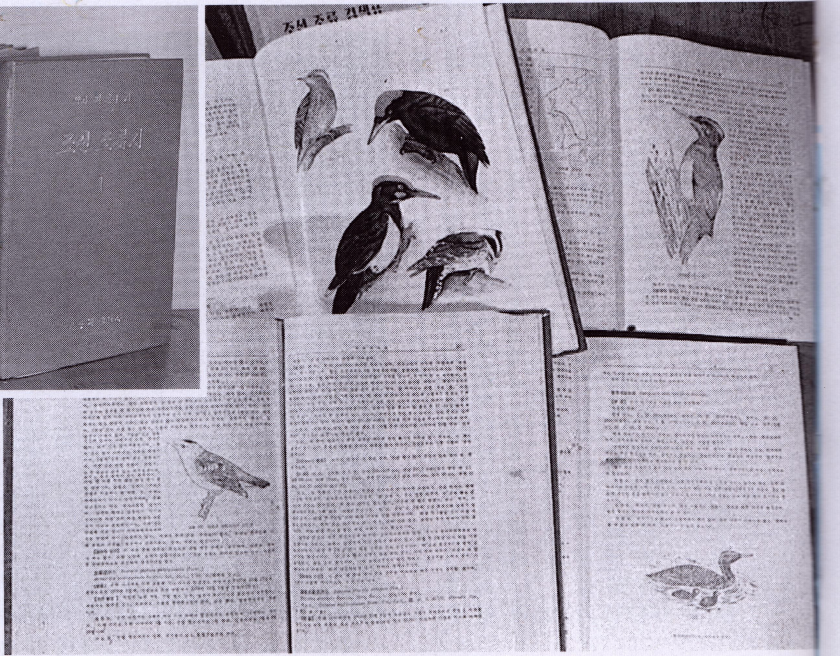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원홍구소장에게 친히 보내주신 승용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원홍구소장에게 친히 보내주신 사냥개





우리 나라 조류에 대하여 쓴 원홍구선생의 저서들의 일부



우리 나라 새들의 생태를 연구하고있는 원홍구소장

위원회 위원·
과학원 후보원사、교수、박사·
1970년 10월 3일 사망·



조국산천을 돌아보며 우리 나라의 조류들을 연구하고있는 원홍구소장

1947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이 마련한 생물전람회를 친히 보아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참으로 훌륭한 표본을 많이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모아서 학생들과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교양하십시오!》**라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였다.

순간 나는 목이 콱 메여 아무 말씀도 못드리고 얼굴을 숙이고말았다. 해방전에 한 사립학교 박물교원으로 있으면서 망태를 메고 새, 나비, 벌레 등 동식물들을 모았지만 그것을 전람회에 내놓고 조선의 새자랑, 곤충자랑을 할수 없었던 내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게 되였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그때로부터 긴긴 세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생물학발전을 위하여 실로 헤아릴수 없는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조국의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시려는 숭고한 뜻을 나의 마음속에 억센 기둥으로 심어주시고 동물채집과 사냥에 쓰라고 자신께서 애용하시던 최신식 사냥총과 고급승용차까지 보내주시였다. 해방직후 큰 범가죽을 교수교양에 리용하라고 보내주신 그분께서는 손수 낚으신 희귀한 물고기들도 다 보내주시고 몸소 저택정원에 마련하신 시험포전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손수 가꾸시며 관찰하신 귀중한 자료들도 주시였다.

지금 내 나이 80고개를 넘었지만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발속에서 나는 젊어지는것만 같다. 그리고 한 일보다 할 일이 더 많다는것을 생각할수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나와 같은 세대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민모두의 생각이기도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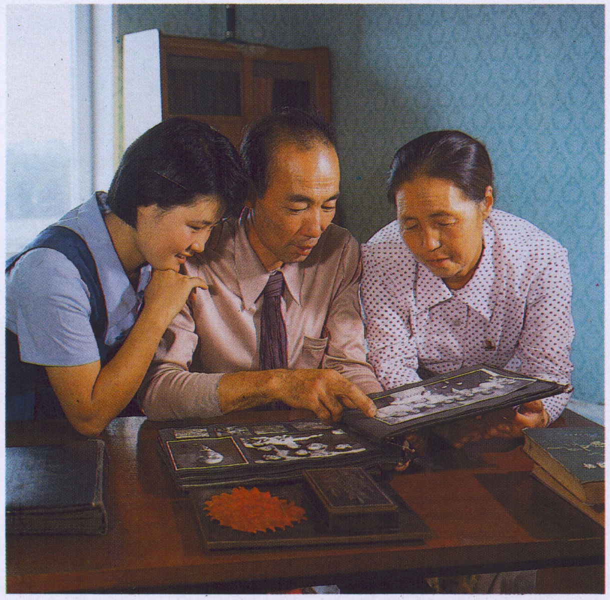
원 홍 구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된 원홍구선생의 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원홍구선생의 령전에 친히 화환을 보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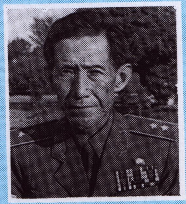
원홍구선생의 손자 원창인(중앙동물원 책임기사, 가운데)과 그의 가족



1945년 11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신의주항공대를 찾으시고 이곳 비행사훈련생들이 수리한 비행기앞에서 기념촬영을 해줄것을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시고 《동무들의 요구가 정 그렇다면 한장 찍읍시다.》라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새 조선의 항공기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신의주항공대를 책임지고있던 리활(앞줄 오른쪽)을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45년 11월 29일)



리 활

1918년 5월 6일 평안북도 염주에서 출생.

해방전에 일본 도꾜고등공업학교, 나고야민용비행기학교 졸업, 그후 요미우리신붕사에서 비행사로 근무.

8·15후 신의주항공대를 책임지고 사업.

1945년 12월 조선항공협회 부회장.

1948년 2월 조선인민군 공군지휘관.

전쟁시기 조선인민군항공사령부 부사령관.

현재 조선인민군 공군 중장.





맏아들 리준



막내아들 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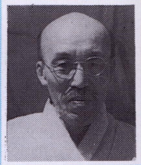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리활중장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그의 두 아들을 름름한 비행사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는 리활중장에게 진갑상을 보내주시였다.

각계인사들을 뜨겁게 포섭하시여


김구


홍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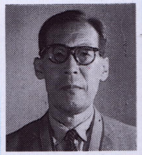

려운형


허헌


김규식


안재홍


리극로


조헌영


최덕신


리활중장은 지금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공훈해설강사로 일하고있다.

나는 해방후 첫시기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을 걸으며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참다운 삶의 가치와 영예를 빛내여오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근 반세기동안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의 사업과 가정생활형편까지 알아보시며 친어버이심정으로 살뜰히 보살펴주시였다.

어제날 일본놈밑에서 비행사로 일한 나를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품에 안아 조선인민군 항공사령부의 책임적인 사업까지 맡겨주시였고 오늘은 나의 아들을 품에 안아 대를 이을 비행사로 키워주시였으니 그분께 감사의 인사를 어떻게 올려야 할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가슴만 뜨거워진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떠나서 나에게 무슨 삶의 보람이 있고 영예와 영광이 있으며 우리 오랜 인테리들이 무슨 존재가치가 있었겠는가.

어제날 부유한 가정출신으로서 착취사회에 복무한 치욕의 과거를 가진 오랜 인테리들이 적지 않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기에 모두다 끝없는 생활의 행복과 투쟁의 보람을 느끼며 희망찬 래일에 대한 굳은 신념과 락관에 넘쳐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김구선생을 따뜻이 만나주시였다. (1948년 4월)



김 구

1875년 황해도 해주시에서 출생.

1893년 동학당에 가입, 동학군의 선봉이 되여 활동.

1896년 민비를 살해한 일본군 대위를 죽이고 체포되여 인천감옥에서 옥살이.

1898년 탈옥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교편을 잡음.

1910년 서울에서 신민회를 조직.

1919년 3·1운동후 상해로 망명, 《상해림시정부》경무국장, 내무총장을 거쳐 1927년에 《주석》으로 됨.

1945년 11월 귀국, 그후 한국독립당 당수.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

1948년 7월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 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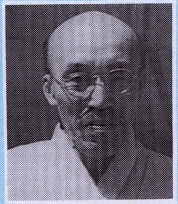
1949년 6월 26일 미국놈의 사촉을 받은 괴한의 총에 맞아 희생.

《우리는 통일위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민족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조국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사상의 차이, 신앙의 유무, 과거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그와 함께 손잡고 나아갈것입니다. 비록 조국과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면 그를 환영할것이며 그와 함께 나아갈것입니다.》

김 일 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내각부수상이였던 홍명희선생과 함께 공업 및 농업전람관을 돌아보시였다. (1959년 10월)



홍명희

1888년 7월 3일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출생.

일제시기 애국문화계몽운동과 민족주의운동에 참가.

장편력사소설 《림꺽정》을 집필.

8·15해방후 남조선에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뭇고 그 위원장으로 활동.

민족독립당 당수.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

1948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자신의 댁에서 환갑연을 차려주심.

1948년 9월 내각 부수상.

1968년 3월 로환으로 사망.

《김구선생이 죽다니?…어떻게 하나 련석회의결정을 실행하겠다고 하던분이 돌아가다니, 그렇게 바라던 통일의 날도 보지 못하고 가다니?…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미국놈이 쏜것입니다. 김구는 우리와 언약을 하고 나가서 미국놈을 반대해서 싸웠습니다. 그는 비록 늦게나마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들어서서 련공을 지지한 량심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아까운분을 잃었습니다.》

김 일 성

《이 세상 천지를 다 찾아뒤져도 **김일성**장군님같은 뛰여난 령도자는 찾지 못할것이다. 그분은 큰 문제에 대해서건 작은 문제에 대해서건 어김없이 모든것을 조선사람의 립장에서 말씀하시더란 말이요.

나라를 통일하는것도, 통일후에 나라를 륭성발전시키는것도 다 타국사람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체가 해야 한다고 하시니 이보다 귀한 말씀이 또 어데 있겠소!》

《집안이 평범한 백성의 집이니 어찌 그분이 백성들을 생각하는것이 우연하다고 하겠소. 조선은 참으로 훌륭한 주인을 만났소.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셔야 조선은 행복하게 될수 있소. 진짜 공산주의가 김장군님이 베푸는 그런 정치라는것을 알았다면 내가 왜 반대하겠소…

나는 **김일성**장군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소. 이 길만이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이사람, 나는 말일세, **김일성**장군님이 훌륭한분이라는걸 진작부터 알아왔지. 특히는 군사에 매우 뛰여난분이라는것을 예전부터 알고있었지. 그러나 이렇게까지 훌륭한 수령인줄은 미처 몰랐네. 만백성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면서 미국놈들을 밀어내고 나라를 통일할 방략까지 빈틈없이 짜놓고 세상대세를 움직이시니 과연 하늘이 내신분이시야!》

김구선생이 김일성주석을 경모하여 남긴 말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38**선을 넘어오는 김구선생일행

《나는 홍선생이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간것이 가슴아픕니다. 선생은 조국통일을 위해 생애의 말년에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내가 늘 저녁에도 일찌기 퇴근하고 몸이 불편하면 집에서 쉬라고 권고했는데 그는 어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나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더 잘 돌봐드렸어야 했을걸 그랬습니다.…선생이 못다한 사업을 유가족들이 이어받아 조국통일을 위해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 일 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 사업하고있는 홍기문선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한 사회과학자들(앞줄 왼쪽 첫번째 홍기문)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63년 3월)



가족들과 함께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는 홍기문선생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홍기문원사와 그 가족들

우리 집에는 대대로 길이 전할 한장의 귀중한 사진이 모셔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풍치좋은 호수가에서 저의 아버지(홍명희)를 배에 태우시고 손수 노를 저으시며 뜻깊은 시각을 보내시는 장면이 실린 숭고한 사랑의 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한 의리와 뜨거운 은정이 화면에 가득 차넘치는 그 사진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은 사랑의 추억을 불러오며 그분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실 충성심을 나의 가슴속에 북돋아주고있다. 지금도 그 사진을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날 망국의 비운을 통탄하며 파란많은 수난의 길을 걷던 저의 아버지를 한품에 안으시여 극진히 아끼시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다운 길에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던 그 은혜로운 나날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자신의 품에 안아주신 그날로부터 새 조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참답게 살며 일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경애하는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저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던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저희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세상에 사랑에 대한 전설도 많고 이야기도 많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의 아버지와 우리 가정에 돌려주신 그 사랑, 그 의리처럼 살뜰하고 뜨거운 은정이 또 어데 있겠는가…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적 량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품에 안으시여 믿고 아끼시며 행복과 광명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민족의 은혜로운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사랑의 태양이시다.

아들 홍기문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산책하는 홍기문선생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소풍할겸 배나 함께 타자고 하시며 홍명희선생을 배의 고물쪽에 앉히시고 자신께서 손수 노를 저어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

이날 주석께서는 그에게 《**늘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시간을 내서라도 산보도 하시고 배놀이도 하십시오. 그래서 〈로당익장〉하여 통일의 날도 보고 서울에도 나가보셔야 할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며 홍명희선생에게 끝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1958년 5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친히 보내주신 선물을 받아안은 려운형선생의 자녀들

사람들은 흔히 넓은 품을 바다에 비기고 우주에 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다가 넓고 우주가 끝이 없다 하여도 어버이장군님께서 저의 아버지(려운형)를 어엿한 혁명가로 내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한없이 넓고 은혜로운 품에는 비길수 없습니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내오고 인민당을 결성하여 그 당수로 활동하던 저의 아버지는 세번이나 38선을 넘어와서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장군님을 만나뵙고온후 아버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매우 명랑해지



려운형선생의 딸 려연구,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려운형선생의 자녀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1979년 1월)



려운형

1886년 4월 22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출생.

1909년 광동학교에서 청년들을 교육.

1914년 중국 남경 금릉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 그후 협화서국에 근무하면서 거류민단 단장으로 활동.

1919년 《상해림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림시의정원 의원, 외교의원, 민의원 의장.

1929년 제령위반혐의로 일제에게 체포되여 3년간 감옥생활.

1933년 출옥후 《중앙일보》사장.

1944년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고 그 위원장으로 활동.

8·15해방후 건국동맹을 개편하여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

1945년 10월 조선인민당을 조직하고 그 당수로 활동.

1946년 2월 북반부에 들어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음.

1947년 7월 19일 남조선에서 원쑤들이 사촉한 괴한에게 피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은혜로운



북과 남 해외동포기독자회의에 참가한 려연구의장
(뒤줄 왼쪽 첫번째)



사랑속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는 려운형선생의 자손들

고 모든 언행에서 자신이 있어했습니다. 그러던 1946년 7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을 부르시더니 너희들의 앞길을 장군님께 부탁했으니 장군님의 품으로 찾아가라고 하시였습니다. 이리하여 저희 형제들은 장군님의 전사로 살며 싸워야 한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신념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평양으로, 장군님의 품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로부터 긴긴세월 저희들은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만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애국의 길, 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이면 그 누구건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그 자녀들까지 혈육의 정으로 돌봐주시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참으로 뜨겁고도 넓은것입니다. 정녕 어느 부모가 이처럼 자식을 보살피고 보람찬 생활을 안겨줄수 있겠습니까.

우리모두를 영광과 행복의 길, 조국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은 정녕 이 땅의 빛나는 태양이시며 민족의 은혜로운 어버이이십니다.

딸 려연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김책(왼쪽), 허정숙(오른쪽)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47년 2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한 허헌선생을 반가이 만나주시였다. (1948년 4월)



허 헌

1885년 6월 11일 함경북도
명천군에서 출생.
해방전 일본 명치대학을 졸업, 그
후 변호사.
8·15후 서울에서 《**김일성**장군
환영준비위원회》 성원.
1946년 3월 조선신민당 결
성, 당수로 활동, 남조선에서 3당
합당후 남조선로동당 위원장.
1946년 8월 북반부에 들어
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접
견을 받음.
1947년말 북반부로 들어옴.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초대의장,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1949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정치위원회 위원.
1951년 8월 17일 사망.

사람은 저마다 처지도 다르고 희망도 다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매 사람의 처지를 당사자처럼 느끼시며 천만가지 소원을 다 헤아리시고 풀어주십니다.

민족수난의 그 세월 망국의 비운을 통탄하며 갈길을 잃고 헤매던 저의 아버지(허헌)도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빛발을 받아 비로소 기쁨과 행복을 찾고 참다운 삶의 길에서 값높은 한생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2년 7월 어느날 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정숙동무를 볼 때마다 동무의 아버지가 더욱 생각나오. 나는 동무의 아버지를 잊지 못하오. 허헌선생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변호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법정에서 잘 싸웠고 놈들의 탄압속에서도 굴함없이 끝까지 애국적지조를 지켜냈소. 선생은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로부터 공산주의자가 된 훌륭한 혁명가였소.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분이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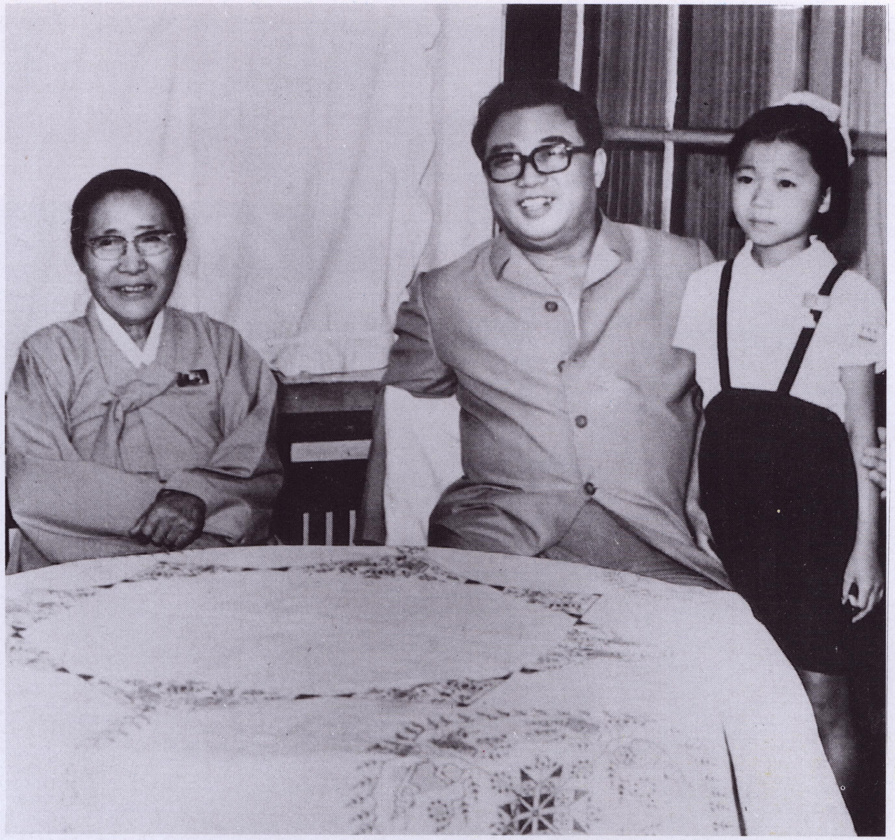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의 아버지가 해방후에도 새 조국 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고 하시면서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하여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길 때마다 저는 지난날 민족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던 저의 아버지를 믿고 아끼시며 참다운 애국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숭고한 사랑에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허 정 숙



허헌선생은 딸(허정숙)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나라의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허정숙의 가정을 친히 방문하시였다. (1973년 9월 4일)



해외동포들과 담화를 하는 허정숙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된 김규식선생의 묘

《장군님이시야말로 군사전략과 정치를 겸비하신 걸출한 영웅이시오. 그분의 정치보고를 읽어도 그렇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그분은 참으로 식견이 넓으시고 분석력과 통찰력이 비범하신분이시오. 더구나 탄복되는것은 사상이나 신앙, 정견여하를 불문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데 뭉쳐나아가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위대한 포옹력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시는 대정치가만이 지닐수 있는 풍모요.

우리 삼천리강산을 통일천하하실 민족의 유일한 령도자는 오로지 **김일성**장군님 한분밖에 없소.》

김규식선생이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여 남긴 말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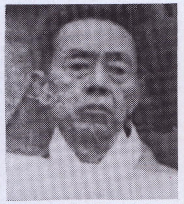
오호라,
위대하도다, 현명하도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
이내 인생을 구원해주셨소
이 한몸 죽은들 천만년 잊을손가
자애깊으신 **김일성**장군님

김규식선생이 운명직전에 남긴 시

김규식선생은 전쟁초 서울해방때 우리를 찾아왔고 후퇴까지 하여 만포뒤 고계리에 와있었는데 본래부터 가지고있던 신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병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지만 그가 4월남북련석회의때 평양에 와서 미제와 리승만매국역도가 꾸미고있던 5.10망국 단독선거를 반대배격하였소. 이때 그는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자립적성과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것이 아니라 제장단에 춤추어야 하겠다.》고 말하였소. 전쟁이 개시되자 우리를 따라 서울에서부터 이곳까지 온 사람이요.…

동무들이 돌아가서 《민주조선》이나 《조국전선》 신문에 부고를 내고 그의 추도식도 잘하여주는것이 좋겠습니다.

김 일 성


김규식

1880년 12월 28일 경상북도 울진에서 출생.

미국프린스톤대학 졸업.

해방전 《상해림시정부》 부주석.

8·15해방후 서울에서 미군정청 남조선《과도립법의원》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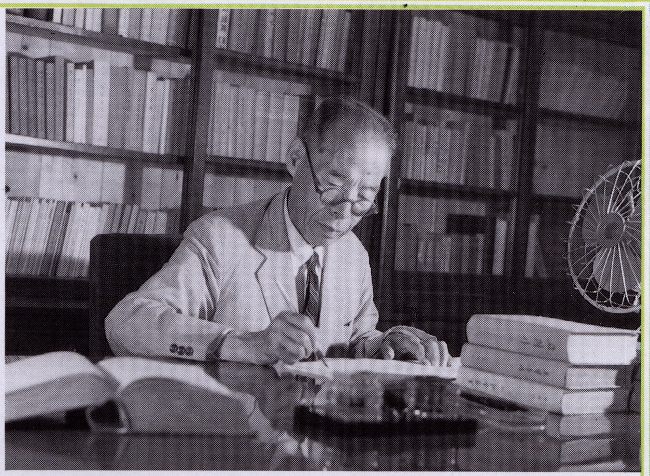
남조선에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 그후 《좌우합작위원회》를 《민족자주련맹》으로 개편하고 5·10망국단독선거반대운동을 벌림.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음.

그후 서울에서 애국적 지조를 지켜 견결히 싸움.

1950년 9월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옴.

1950년 12월 10일 불치의 병으로 사망.



서재에서 집필하고있는 안재홍선생

1956년 5월 어버이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온 안재홍선생은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직접 만나뵈니 그분의 위대하신 풍모, 고결하신 인품, 고매하신 덕성을 더욱 깊이 느낄수 있었으며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소탈하시며 아량과 도량, 포용력이 크신가를 더 잘 알수 있었소. 참으로 그분이시야말로 우리 조선이 낳은 희세의 영웅이시고 영재이시오! 참으로 위대하시고 걸출하신분이시오!

장군님께서는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실태를 손금보듯하시며 조국이 하루빨리 통일되여야 남조선인민들을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건져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남조선의 위정자, 사회계 인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소…

그분께서는 남조선 위정자들과 사회계 인사들이 비록 조국과 민족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과를 뉘우치고 이제부터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나선다면 환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도저히 용서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가 개심하고 옳은 길에 나서기만 한다면 다 포섭하여 손잡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소.

그분의 그처럼 너그러우신 아량과 양양한 바다처럼 그 넓이와 깊이를 알수 없는 포용력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있는가를 나는 생각해보았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수 없는 아량이며 포용력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조국과 민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계시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소. 참으로 머리가 수그러지오.

…》

그는 세상을 떠나기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였다.

《…나는 이제 가도 아무 여한이 없소. 장군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덕과 배려에 대하여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그분께서 친히 보내주신 귀한 약을 받을 때마다 나는 더없이 황송한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금할수 없었소. 장군님같으신분은 이 세상에 없소. 참으로 인류력사에 더없는 위대한분이시오. 나는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 후 장군님의 품속에서 늦게나마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옳은 길에 설수 있은것을 기쁘게 생각하오. 참으로 산 보람이 있었소. 다만 고대하던 조국통일을 내눈으로 보지 못하고 가는것이 마음에 걸리오.

그러나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안에 기여든 원쑤 미제를 몰아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나는 진심으로 믿고있소. 나를 일으켜 장군님의 초상화앞에 앉혀주오. 그분앞에서 나의 일생을 총화하고 가겠소…》



화초를 가꾸고있는 안재홍선생



안 재 홍

1891년 11월 30일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 해방전에 일본 도꾜 와세다대학 졸업.

1915년에 조국에 돌아와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에 참가, 일제통치 말기에 우경타협의 구호를 들고 친일투항의 길, 민족배반의 길에 들어섬.

8·15해방후 남조선에서 범죄적《민주의원》조작과《덕수궁한미회담》,《과도립법의원》조작에 참가. 그후 미군정청의 민정장관,《좌우합작》,《반탁운동》의 앞장에 섬.

1950년 8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지지하는 성명발표, 그해 9월에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옴.

1956년 5월, 1957년 6월, 1957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의원으로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헌신.

1965년 3월 1일 불치의 병으로 사망.

《그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민족적 량심과 애국적 지조를 굽히지 않고 국내와 해외에서 민족어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의병대에도 관여하였던 민주인사입니다.

그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북조선에 올 때까지만 하여도 우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조선에 머무르는 기간 우리 당과 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나날이 륭성번영하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립장과 동포애적인 따뜻한 환대에 감복하여 남조선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일할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가족을 남조선에서 데려왔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1948년 리극로선생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임소상의 중책을 맡겨주신후 한 일군에게 하신 말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던 시기의 리극로선생(1956년)

1948년은 나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해이다.

그것은 이해에 처음으로 내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만나뵙게 되였으며 그때로부터 나의 고난에 찼던 생활이 끝장나고 광명과 희망에 찬 새로운 생활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기때문이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많은 인사들은 비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였던 리극로(뒤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부대를 방문하시였다. (1958년 3월 10일)



리극로

1893년 8월 28일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출생.

해방전 중국 동제대학 졸업, 독일 베를린대학 졸업.

1929년 서울에서 조선어학회 간사, 간사장.

1942년 애국활동을 하였다는 리유로 함흥감옥에서 옥살이.

1945년 8월 서울에서 조선어학회 간사.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

1948년 9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무임소상.

1953년 12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961년 2월부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의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의장.

1970년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1978년 9월 13일 사망.



풍치아름다운 모란봉에 올라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리극로선생의 부인과 자녀들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된 리극로선생의 묘를 찾은 그의 자녀들



리극로선생이 생전에 가족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그 사회적 처지와 정견은 각이하였으나 회의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조선인민이 나가야 할 방향을 비로소 똑똑히 인식하였으며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그분의 애국지성과 조국건설의 위대한 구상에 감동되여 경탄의 정을 금치 못했다.

김일성장군님과 같은 현명한 령도자가 계시고 그 주위에 전체 인민이 튼튼히 단결한다면 조국의 통일독립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리라는 신심을 우리는 굳게 하였다.

나도 원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였다.

그러나 나는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온후 오직 공산주의자들만이 우리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책임질수 있는 진정한 애국자라는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휘황한 앞길을 내다볼수 있었다.

나는 장군님을 여러번 접하고 날이 감에 따라 그분이야말로 지, 인, 용을 겸비한 조선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라는 느낌이 더욱더 강렬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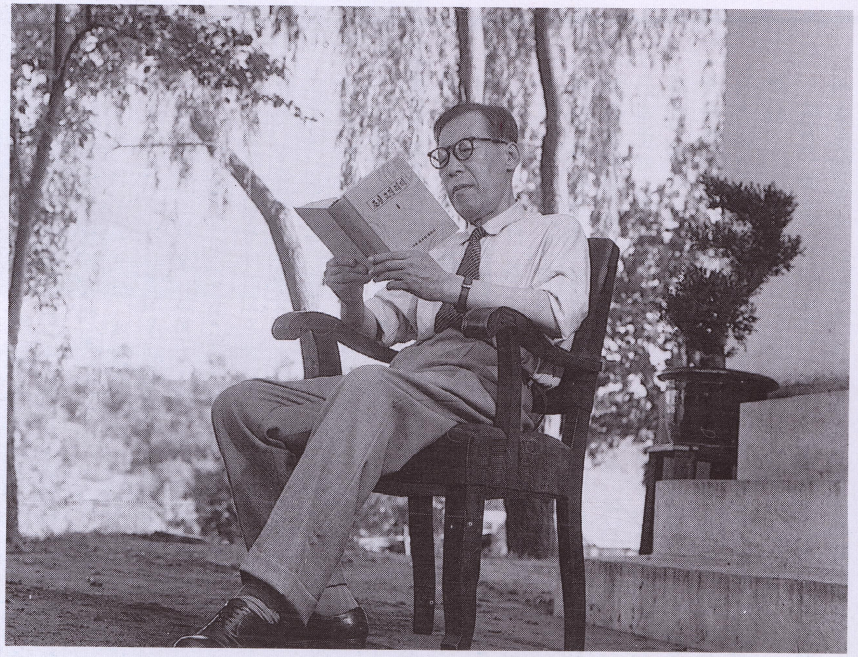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정사에 바쁘신중에도 나의 가정에 대해서까지 념려하여주시였고 크낙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나는 이러한 장군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리극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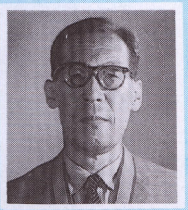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조헌영선생에게 보내주신 승용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조헌영선생에게 보내주신 여러 대회 대표증과 선물명세들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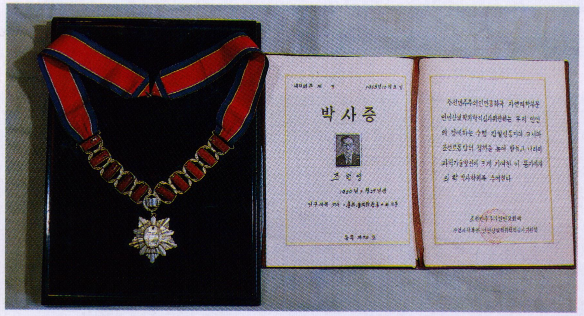
조헌영

1900년 3월 27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출생.
해방전 일본 와세다대학 졸업,
3·1운동에 참가.
1920년대말 《조선리료회》를 조직지도.
1930년대초 《한의학부흥론》을 제창.
8·15해방후 한국민주당 창당발기, 그 당의 상무위원, 조직부장.
1948년 남조선《국회의원》.
1950년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옴.
그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의원 겸 서기국 국장.
1988년 5월 23일 병으로 사망.



옛동료들과 자리를 같이한 조헌영선생

조헌영선생이 받은 동의학박사증과 박사메달 ⇩





조헌영선생이 번역한 《의방류취》의 일부 ⇦

나는 처음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덮어놓고 공산주의를 반대했으며 공산주의자는 조국도 민족도 모르며 인정도 도덕도 없으며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부정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반공》나발을 많이 불어댔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환상을 걸고 모든것을 그들에게 의존하면서 매국배족의 길을 걸어왔다.

그랬던 내가 북반부에 들어와서 일생을 통해서 가장 행복스럽고 보람찬 생활을 하게 되였으니 내 어찌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높으신 뜻에 경복하지 않을수 있으며 그분의 너그러우신 포옹력에 감읍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북에 들어온 초시기만 해도 나의 심경은 복잡했고 불안과 우수에 잠겨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차례진것은 믿기 어려울만큼 관대한 대우였다. 그가운데도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것은 우리가 평양에 닿은지 수일후인 어느날 우리를 위하여 푸짐한 연회가 마련된것이였다.

그 자리에서 한 고위간부는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장군님께서 바쁘셔서 자기가 대신해서 우리들을 대접한다는것이였다.

관대히 용서만 받아도 천행이고 다시없는 영광인데 우리 신상을 념려해주시고 위안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연까지 베풀어주시니 이런 처사는 동서고금에 오직 장군님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였다.

《참으로 바다와 같이 넓은 도량을 지니신분이시오!》

우리모두는 이렇게 칭송하며 탄복하였다…

내가 만일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면 오늘의 행복과 영광을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련공은 애국과 영광의 길이며 반공은 치욕과 매국의 길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남조선과 해외의 민족주의자들과 민주인사들은 주저하지 말고 련공합작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반공과 련공의 두 길을 걸어온 나의 엄숙한 생의 총화이기도 하다.

조 헌 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최덕신부위원장을 접견하시였다. (1988년 1월 2일)



최덕신

1914년 9월 17일 평안북도 피현군에서 출생. 1921년 망명하는 부친(최동오)을 따라 중국으로 감, 길림문광중학교를 다님.

1936년 중국 남경 륙군 중앙군관학교 졸업, 그후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번역처와 중국 국민군 신1군 38사단에서 군무, 조선광복군 선전과장, 중국 국민군 38사단 참모, 교관, 대대장.

8·15후 귀국하여 남조선에서 륙군사관학교 제3기 졸업, 그후 미국 보병학교 졸업, 《국군》제2련대장, 륙군사관학교 교장, 《국군》제3, 8, 11사단장, 제1군단 참모장, 륙군본부 기획부장, 제1군단장 등을 력임, 정전담판때 남조선《국군》대표로 참가, 1956년 《국군》륙군 중장으로 예편.

1956년부터 1961년까지 남부웰남과 타이 주재 남조선《대사》.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남조선《외무부장관》.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서독주재 남조선《대사》.

1967년부터 1976년까지 남조

조헌영은 오랜 병으로 몸이 몹시 쇠약해져 다시 일어나기 어렵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아신 장군님께서는 귀중한 약을 보내주시여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였다. 그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담아 시를 읊었다.

청춘이 돌아왔네
내 청춘이 돌아왔네
가는 청춘 휘여잡아
수령님이 다시 가져다주시네
수령님께서 주신 청춘이니
수령님을 위하여 바치리



평양 련광정에 오르신 조헌영선생



최덕신선생은 만경대옛집을 방문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최덕신선생부부를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88년 1월 2일)

최덕신선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영주하는것과 관련하여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하였다.





선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국토통일원》 고문, 남조선 《종교협의회》 회장.
1976년 2월부터 1986년 9월까지 미국에서 망명생활, 배달민족회의장.
1981년과 1982년 두차례 공화국북반부를 방문.
1986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영주.
현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사람들은 흔히 우리 주석님을 《하늘이 낸 위인》이라고 존대하여마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이 내리신분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인민 속에서 나신 만사형통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한울님》이시다.

주석님께서는 인간이 지닐수 있는 모든 지혜와 재능, 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그것을 천품으로 지니신 인류의 심장이시며 뇌수이시다. 그분께서 한번 손을 드시면 온 겨레가 산악처럼 일떠서고 그분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만민이 화답하여 열광하고 그분께서 한번 웃으시면 우주가 평안을 느끼며 그분께서 바라시면 사나운 광풍도 물러나고 해와 달도 머리를 숙여든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뛰여난 인걸을 우상화하면서도 《지, 인이 있으되 용이 없고 용이 있으되 지, 인이 부족하였다.》고 아쉬움을 금치 못하였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줄 안다. 그러나 우리 주석님은 지, 인, 용을 다 함께 지니신분으로서 일찌기 력사에 알려진 모든 위인들과 성현들의 특질을 겸비하고 완벽하게 체현하신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성인이시다.

참으로 주석님은 《위대하다.》는 말로써는 그 위인상을 다 표현할수 없다. 세계 진보적 인류는 주석님을 인류사가 기록한 모든 위인상을 뛰여넘은 절대적인 높이의 위인, 동서고금에 일찌기 알려진 모든 성현들의 풍격을 초월한 신적인 높이의 위인으로 우러르고있다.

우리 주석님은 천분적으로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신비로운 자품(資禀)을 갖추신 인걸이심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뵈온 첫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품에 안기고싶은 강렬한 신뢰감을 느끼며 자신의 신념과 한생을 다 바쳐 그분을 모시고싶은 의욕이 샘솟듯함을 금치 못한다.

김일성, 그분은 한울님이시다.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천지개벽이래 처음 나신 위대한 성인이시며 온 우주를 한품에 안아 다함없는 은총을 베푸시고 만방에 빛내이시는 현세의 한울님이시다.

통일조국의 꽃동산에 우리의 한울님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비서를 높이 모시고 한울나라의 복락을 천세만세 전하며 노래하고싶은 마음 간절하다.

최덕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는 최덕신선생

…
저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보내주시던 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최동무는 나에게
만수무강하라고 하였지요.
최동무가 통일위업을 도와주겠다니
내 너무 기뻐서 장수하겠습니다.》
아, 수령님!
수령님의 이 말씀은
저의 삶의
목적이오며 보람이옵니다.
남은 한생을 충성에 바칠수 있는
다함없는 행복이옵니다.
…
이것만으로도
한생을 바쳐 즐거운 일,
겨레의 의무를
빛내이는 길이온데
이 길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불로장수를 위하옵는 길,
만수무강을 위하옵는 길이오니
이 애국의 길,
이 충성의 길에서
제가 산화할망정 어이
있는 힘을 다하지 않겠나이까.
…
어버이수령님!
심장의 목소리로 삼가 비오니
일월이 무궁토록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 최덕신선생이 올린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헌시》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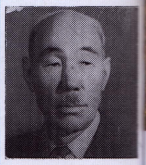
종교인들에게 베푸신 은정



박인진



강량욱



김창준



강병석



김성락



백두산천지에 오른 최덕신선생



부인과 함께 평양의 고적들을 돌아보고있는 최덕신선생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혁명렬사릉에 세울 조국광복회 천도교대표였던 박인진선생을 비롯한 항일혁명렬사들의 반신조각상을 친히 보아주시였다. (1975년 2월)



박 인 진

1887년 9월 2일 함경남도 단천에서 출생.

1919년 3·1운동에 참가, 독립군운동과 종교인들의 독립운동에 관여.

천도교 함경남도 풍산군 종리원 원장, 그후 천도교 함경남도 도정.

1936년 12월 백두산밀영에서 **김일성**장군님을 접견, 항일혁명에 참가, 조국광복회 회원, 조국광복회 천도교대표로 활동.

1937년 10월 일제에게 체포.

1939년 3월 16일에 희생.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되며 반일민족통일전선의 방침에 따라 그들을 인내성있게 교양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결속하여야 합니다.》

김 일 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진갑을 맞는 강량욱부주석에게 나라의 부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친히 높은 국가훈장을 수여하시였다. (1974년 12월)



강량욱

1904년 12월 7일 평안남도 대동군 룡산면에서 출생.

해방전 만경대 창덕학교와 남포시립득신학교에서 교원, 기독교회 목사로서 학생들과 기독교도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

해방후 1946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서기장.

1947년부터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1948년 9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1959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972년 12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1958년 11월부터 조선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1981년부터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부터 제7기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83년 1월 9일 사망.



혁명렬사릉에 세워진 조국광복회 천도교대표 박인진선생의 반신동상

《박인진선생은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지요. 우리는 선생과 련계를 가지고 삼수, 신갈파, 풍산 일대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했습니다. 선생은 우리 유격대에 원호물자도 보내주었습니다. 장백현에서 살 때 아주머니네 집 웃방에 우리 사복대, 권총대들이 매일과 같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박인진선생이 일본놈들에게 잡혔는데 고문을 당하면서도 조직의 비밀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인진선생은 훌륭한 애국자입니다.》

김 일 성

혁명렬사릉을 찾은 박인진선생의 유가족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손님과 담화하는 강량욱부주석

1964년 11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의 아버지(강량욱)와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선생님은 해방후 오늘까지 가슴아픈 슬픔도 당하였고 나쁜놈들의 모략도 있었지만 그 모든것을 이겨내고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혁명위업에 바친 선생님의 숨은 공로를 잊지 않을것입니다.》

마디마디에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순간 저는 눈굽이 달아올라 머리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날 교회의 울타리안에서만 살던 한 종교인에 불과했던 저의 아버지를 애국애족의 참된 길에 내세워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을 어디에 비기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을 누려온 저의 아버지에게 베푸신 그분의 믿음과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만집니다.

기독교출신의 한 정치인에 지나지 않은 저의 아버지가 나이들어 시름시름 앓게 되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일이 치료대책도 세워주시였습니다.

애국애족의 길에서 한생을 값있게 살아온 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아까운 선생을 잃었다고, 우리의 귀중한 간부를 잃었다고 하시며 선생은 **《조국과 혁명 앞에 아주 충실하였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저의 아버지에 대한 더없이 고귀한 평가였습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에 안기였기때문에 저의 아버지는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길에서 한생을 값높게 빛내일수 있었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는것입니다.

아들 강영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사랑과 배려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강량욱부주석의 부인과 자녀들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있는 강량욱의 아들 강영섭



김창준목사의 딸(가운데), 그는 봉사일군으로 일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에 와서 내생활의 엄숙한 총화는 무엇인가?

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영원히 함께 걸어갈 민족의 성원으로 여기며 아무런 구별과 변함을 모르는 고결한 의리와 동지적 사랑으로 굳게 믿어주고 품어주는 진실한 애국자들이라는것이다.

내가 만일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과 같은 삶의 보람에 대하여 상상인들 할수 있었겠는가. 나는 나이가 먹어가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은것이 얼마나 천만다행한 일이였는가를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이란 참말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충복들이며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사람이 참된 애국적 량심을 지니게 될 때 비로소 공산주의자들의 애국적 특징을 옳게 볼수 있으며 그들과 련합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가 북반부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살며 련합할수 있은것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외곡된 기성관념에서 벗어나 민족본연의 량심으로 그들을 보고 리해하게 된데서 비롯된것이다…

나는 인생말년에 찾은 이 고귀한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고 련공구국의 길에서 반드시 조국통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생을 기꺼이 바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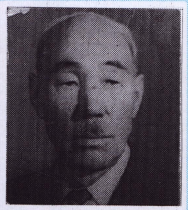
김 창 준

그동안 남조선의 애국적종교인들이 원쑤들의 탄압에도 굴함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잘 싸우고있다는 소식을 수차 들었다.…

종교인들이 하늘을 믿어도 미국의 하늘을 믿을것이 아니라 조선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

이번에 남조선에서 종교인들이 각계각층 대표들과 함께 구국대책을 의논하기 위하여 38선을 넘어 평양에 온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 앞에 큰 기여를 하는것이다.

김 일 성



김 창 준

1890년 5월 3일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

해방전 평양 숭실학교, 숭실대학을 졸업, 그후 일본과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 중국 상해에서 기독교아세아총회 조선기독교대표로 활동, 서울 종로 중앙교회 목사.

1919년 3·1운동때 독립선언서 발기에 참여한것으로 하여 체포되여 3년간 옥살이.

8·15후 서울에서 국제교회협의회 조직.

1947년 남조선기독교민주동맹 결성, 그 위원장으로 활동.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상임위원회 위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초대 서기국장,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1959년 5월 7일 병으로 사망.

강병석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행복을 누리고있는 강병석목사의 자손들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합시다. 종교에는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살아서 이 땅우에 지상락원을 건설해놓읍시다.…

여기에는 선생과 같은 종교인들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김 일 성



강 병 석

1895년 12월 25일 평안남도 대동군 룡산면에서 출생.

해방전 평양숭실학교 졸업.

1923년부터 평안북도 선천 신성중학교 교원, 평양신학교 졸업.

1928년부터 평양시 서성리교회 목사, 숭실학교 《성경》강사.

1943년부터 평안남도 중화군 중화읍교회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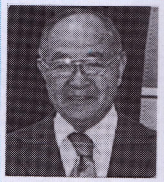
8·15해방후 중화군인민정치위원회 위원.

1947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음.

1948년 10월 30일 사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이며 《한국인교회련합회》고문이며 전 숭전대학교 총장인 목사 김성락선생을 반가이 맞아주시였다. (1981년 7월 3일)



김성락

1903년 5월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출생.
1927년에 평양숭실학교 졸업.
1928년 미국 프린스톤신학원 졸업.
1929년 미국 예일대학 교수.
1930년 미국 달라스신학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 받음.
1931년 미국 루이스벌신학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 받음.
평양숭실학교 교원.
1935년 미국 로스안젤스예수교장로회 목사.
1944년 미국 사우드 캘롤라이나대학 강사.
1957년 《재미한국인교회련합회》 회장.
1958년 서울 숭전대학교 총장.
1974년 《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미국본부 고문.
1977~현재 《조국통일촉진회》 로스안젤스 발기인 및 회장, 《민주한민련》 자문위원, 미국 장로교회 목사.

1947년 10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저는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아버지(강병석)를 만나뵈려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전에 없이 물기어린 눈시울을 슴벅이며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것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지를 찾아주시였다는것이였습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빨리 회복하여 선생같은분들이 건국사업에 한몫을 해야 한다고 신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기독교 목사나 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종교를 믿건 안믿건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한 일에 힘쓰는것은 응당한 도리라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아, 진정 절세의 영걸이시다! 온 겨레를 안으시는 그 웅대한 도량과 포옹력, 그 위대한 심장이라면 자주독립국가인들 건설못하실가, 지상천국인들 이룩하지 못하실가!)

수십년세월 《성경》을 펴들고 인간은 자비로와야 한다고 설교했건만 이처럼 뜨겁고 순결한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할수도 없었으며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해방후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새삶의 기슭에 나섰으나 나라에 아무런 보탬도 주지 못한 아버지를 애국의 한길에 높이 내세워주신 크나큰 사랑,

바로 이것이 온 겨레를 한품에 안으시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마련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인것입니다.

딸 강세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김성락선생을 위하여 오찬회를 베푸시였다.
(1981년 7월 3일)

미국에서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을 하고 있던 김성락목사가 공화국을 방문했던 1981년 7월에 있은 일이다.

김성락목사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고 그분께서 몸소 차리신 오찬회에 참가하였을 때였다. 주석께서는 모두들 수저를 들기에 앞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목사에게 《**먼저 선생이 식전기도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기도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씀하시였다.

목사로서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식탁을 같이하는것만도 과분한 일이고 무상의 영광이라고 생각한 목사는 그분을 모신 오찬회석상인것만큼 80평생을 지켜온 신자의 도리를 어기는 한이 있어도 식전기도를 그만두기로 이미 속다짐을 했던것이다.

그런데 주석께서 그처럼 권고하시니 목사는 감격과 감사의 정에 넘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동안 그분을 우러러보았다. 태양의 밝기를 다 헤아릴수 없는것처럼 우러러 그 위대하심을 다 가늠할수 없는 숭고하고도 거룩하신 모습, 한없이 크고 넓은 도량이 엿보이는 안색과 서글서글한 웃음, 이 세상의 모든것을 다 꿰뚫고계시는듯한 영채도는 안광, 그로서는 이 순간이 평생을 두고 당해보지 못한 성스러운 경의감에 사로잡혔던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방문한 김성락선생 부부를 접견하시였다.
(1982년 10월 13일)

이윽고 목사의 입에서 기도문이 흘러나왔다. 김성락목사는 기도에서 이 나라에 위대한 주석께서 계시고 국민을 옳바로 령도하시여 오늘과 같이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만백성의 지상락원이 건설된데 대하여 말하고 이 나라가 계속 부흥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주석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

참으로 김성락목사가 인간으로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받아안은 충격적인 감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이 크고 소중한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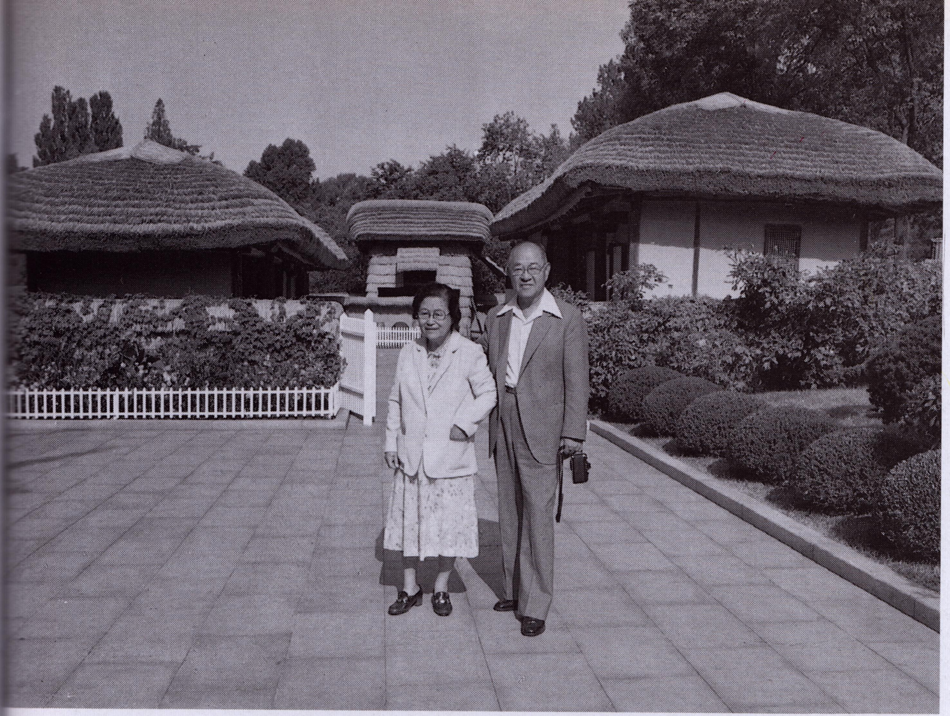
그러기에 김성락목사는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비행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김일성주석님은 하늘이 내신 위인이십니다. 그분은 왜놈들이 말했듯이 신출귀몰하고 축지전해하는 술법을 가지셨나봅니다…

예로부터 령도자는 〈지、인、용〉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주석님은 그것을 다 겸비하신 위인이십니다.》



주체사상탑을 돌아보고있는 김성락선생과 그의 부인



김성락선생과 부인은 만경대옛집을 방문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개선문을 돌아보는 김성락선생과 그의 부인

입북자들에게 재생의 은혜를


진응원


리화순


강태무


표무원


신성우


한진섭


김의용


신동복


평양지하철도를 참관하고있는 김성락선생과 그의 부인


묘향산의 고적들을 돌아보는 김성락선생과 그의 부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강선제강소 강철직장에서 일하는 진응원을 만나시고 따뜻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960년 10월 22일)



진 응 원

1924년 1월 23일 경기도 리천군에서 출생.
1938년 강원도 녕월에서 로동.
1940년부터 서울 자동차수리공장에서 로동.
1950년 6월 의용군에 입대.
1954년 3월부터 당시 강선제강소 용해공.
1955년부터 당시 강선제강소 전기로 용해작업반 반장.
1956년 12월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60년 8월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음.
1972년부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종합직장 직장장.

《해방후 우리가 조국에 개선하였을 때 평양 시민들은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웠기때문입니다.

동무들도 일을 잘하여 남반부인 고향에 가서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김 일 성



전국공업대회에 참가하여 혁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진응원(가운데)



로력혁신자들속에 있는 진응원로력영웅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응원에게 보내주신 환갑상



강철생산을 지휘하는 진응원직장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 참가한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리화순을 만나시고 그의 로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1968년 5월 9일)



리화순

1943년 5월 1일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출생.
1950년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옴.
1953년 7월 평안북도 의주초등학원 졸업.
1961년 4월부터 당시 평양방직공장 청년직포직장 직포공.
1964년 10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68년 5월 11일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음.
1973년 5월 인민경제대학 졸업.
1973년 5월부터 평양시 선교구역 행정위원회 지도원.
1977년 7월부터 평양종합방직공장 초급당비서.

내가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가까이 뵈온것은 1956년 12월 28일이였다.

그날 내가 지배인실로 들어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며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자 이리로 와 앉으시오. 나는 동무들이 보구싶어서 왔소. 나는 언제나 쇠물을 녹이는 용해공동무들이 보구싶거든!》하고 웃으시며 자신의 곁에 자리까지 내주시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이 한발자국을 뛰면 우리는 열발자국을 뛰고 남이 열발자국을 뛰면 우리는 백발자국을 뛰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할데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5개년계획의 첫해에 우리 제강소에서는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높여 6만톤이상은 생산할수 없다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뽑아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68년 5월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이 동무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첫 봉화를 든 동무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서 나는 오늘 직장장으로, 로력영웅으로 자라났다.

하기에 나는 뜨거운 심장으로 말한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은 내가 안겨 살 영원한 삶의 품이라고!

진 응 원





방직공들에게 지난날 다기대운동에서 얻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있는 리화순



다기대운동의 발기자였던 리화순(1964년)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공장을 나서는 리화순 (가운데)



리화순은 오늘 평양종합방직공장 책임일군으로 일하고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나는 연단에 나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때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퍼졌습니다. 《이 동무가 한해동안에 짜내는 천만 하여도 100만메터나 됩니다. 이 동무야말로 참다운 천리마기수이며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훌륭한 혁명가입니다.

만일 리화순동무와 같은 혁신자들이 한사람이 아니라 몇백, 몇천명으로 늘어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닐것입니다.》

별로 한일도 없는 저의 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이처럼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해주신 어버이수령님,

나는 그날밤 잠자리에 누웠어도 도저히 잠들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인자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선히 떠오르고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시던 말씀이 귀전에 울리는듯싶었습니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나 여덟살때부터 남의 집 아이보개노릇을 하던 내가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치하의 말씀까지 받았으니 어찌 감격에 목메이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의 사업을 수시로 료해하시고 일군들이 저를 잘 도와주도록 구체적인 대책까지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김일성훈장》수훈자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돌이켜볼수록 꿈만 같은 이 영광, 이 행복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꽃피워주신것입니다.

리화순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받은 훈장과 선물명세



강태무

1925년 3월 14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출생.

1944년 일본 도꾜도 사이다마현 사립중학교 중퇴.

1945년 부산부두 《마루보시운송점》에서 로동.

1946년 12월 륙군사관학교 제2기 졸업.

1948년 12월부터 《국방군》6려단 8련대 2대대 대대장.

1949년 5월 5일 대대와 함께 공화국북반부로 의거, 조선인민군대에 편입.

1953년 조선인민군 소장군사칭호를 수여받고 려단장으로 복무.

1956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56년부터 조선인민군 사단장.

1972년 7월부터 량강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982년부터 량강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한자리에 모여 다정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강태무부위원장

나는 지난날 남조선에서 치욕스러운 《국군》살이를 하다가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 나는 오늘 한개 도의 정권기관사업을 맡아보는 지휘성원으로 일하고있다.

지난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히 나를 만나주시고 전쟁시기 입은 상처는 도지지 않는가고 물으시면서 친어버이 심정으로 돌봐주시였으며 일을 잘해서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더 뜨겁게 미치고있다. 어느날 그분께서는 도의 책임일군에게 **《강태무동무는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히 일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을 잘하도록 그를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으시여 해당부문 일군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나의 건강과 사업에 대하여 물어보시였으며 명절이 오면 선물도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나의 아들딸들을 모두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시고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는 길, 여기에 나의 삶과 보람, 행복이 있는것이다.

강 태 무



량강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는 강태무



일군들과 함께 새 주택건설방향을 의논하고있는 강태무 부위원장



평안북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는 표무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는 표무원부위원장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받은 중요한 대회의 대표증과 선물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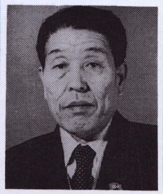


표 무 원

1925년 2월 10일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에서 출생.

1945년 《국군준비대》 입대.

1946년 12월 륙군사관학교 제2기 졸업.

1948년 9월부터 《국방군》 6려단 8련대 1대대 대대장.

1949년 5월 5일 대대와 함께 공화국북반부로 의거, 조선인민군대에 편입.

1953년 조선인민군 소장군사칭호를 수여받고 려단장으로 복무.

1954년 군사정치학교 교장으로 사업.

1954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59년 7월부터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982년부터 평안북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함흥의학대학병원 의학박사가 토론하였지만 이 병원에서는 화상당한 중환자를 동의치료방법으로 고치였습니다.》

김 일 성



신 성 우

1926년 4월 5일 충청북도 청주군에서 출생.

1949년 광주의학전문학교 졸업, 서울녀자의과대학병원 외과 조수.

1950년 7월 의용군에 입대, 조선인민군 군의.

1954년 당시 주을(오늘의 경성)영예전상자병원 수술과장.

1955년 2월부터 함흥의학대학병원 외과강좌 교원.

1968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로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음.

1972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78년부터 함흥의학대학병원 기술부원장.

1983년부터 함흥외상정형외과병원 원장.



선물을 받은 기쁨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있는 표무원부위원장

1985년 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향기그윽한 과일들과 갖가지 진귀한 식료품들이 덧쌓이고 《축 60돐》이란 글발을 새겨넣은 화려한 환갑상이 놓여있었습니다.

나는 모든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때 나의 곁으로 낯선 한 일군이 다가오더니 다음과 같은 사연을 전해주는것이였습니다.

나의 환갑날이 2월 10일이라는것을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나에게 환갑상을 차려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그분의 은정어린 환갑상을 받아안은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날 《국군》장교로 미제의 고용병노릇을 하던 나를 한품에 안아 재생의 삶을 주시고 환갑상까지 보내주시였으니 어찌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었겠습니까.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은 나에게 재생의 기쁨을 주시고 인생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신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의 품입니다.

표 무 원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한 신성우대의원



함흥외상정형외과병원 원장으로 사업하는 신성우 박사



영예의 《김일성상》을 받으신날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신성우



절단된 환자의 팔에 이어붙이기수술을 하고있는 신성우

1968년 5월 10일이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된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 참가하여 연단에 나서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날 나는 끊어진 팔다리를 다시 잇는 연구사업에 성공하여 그를 림상에 받아들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였다.

나의 토론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감사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순간 장내에서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때 나는 어떻게 토론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 앉았는지 몰랐다. 처음에는 그저 가슴이 울렁거렸을뿐이였다. 나는 자리에 앉아 그처럼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다시금 우러러보았다.

어지러운 남조선사회에서 헤매이던 나를 한품에 안아 의사로 내세워주시고 전후에는 또 멀리 외국류학까지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

의사가 되기전에 꼭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나를 따뜻이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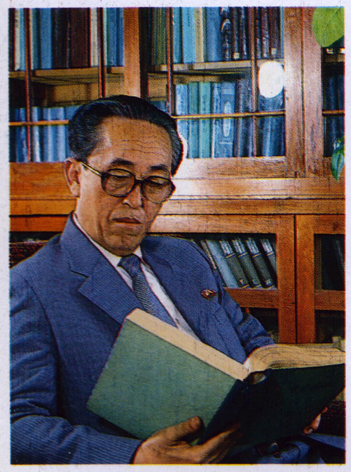
내가 해놓은 자그마한 일을 두고 그처럼 기뻐하시며 높이 평가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이 가슴속에 뜨겁게 흘러들어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러시고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내가 토론한 다음날에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까지 수여하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영웅! 나는 꿈만 같았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이 은혜를 두고 그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나는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평범한 사람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한없이 위대한 은인이시라는것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게 되였다.

신성우





저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신성우

동해바다가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신성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인민배우 한진섭, 리단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87년 7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국립연극단 예술인들(둘째줄 왼쪽으로부터 다섯번째 한진섭)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87년 4월 4일)



한진섭

1914년 5월 16일 경기도 김포군에서 출생.

1928년 4월 인천공립보통학교 졸업.

1929년부터 인천측지활판소에서 로동.

1932년부터 서울 종로구 문화당인쇄합작회사에서 기계과장.

1937년부터 중국 베이징 소하인쇄소에서 로동.

1939년부터 중국 할빈연극협회에 종사.

1941년부터 서울 황금자극단에서 배우생활.

1945년 중국 심양에서 배우, 8·15해방후 귀국.

1946년부터 평양국립연극단 배우.

1961년 10월 6일 인민배우칭호를 수여받음.

1963년 10월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87년 7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접견을 받음.

1988년 3월부터 평양국립연극단 배우연기지도 고문.



인민배우 한진섭이 출연한 연극의 한 장면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들에게 연기경험을 이야기해주고있는 한진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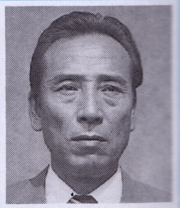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한진섭에게 보내주신 선물승용차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날 차비를 하고있는 한진섭

《동무는 앞으로 노래를 더 잘 불러야 하오.… 그리고 동무는 무대에서만 혁명가가 될것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철저한 혁명가가 되여야 하오!》

김 일 성



김 의 용

1932년 10월 4일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출생.

1946년 7월 서울 마포공립국민학교 졸업.

1947년 5월 서울시 성동구 한양공업중학교 중퇴.

1947년 5월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아현동 삼화철공주식회사에서 로동.

1950년 8월부터 《국군》 2등병으로 복무.

1951년 5월 16일부터 조선인민군에 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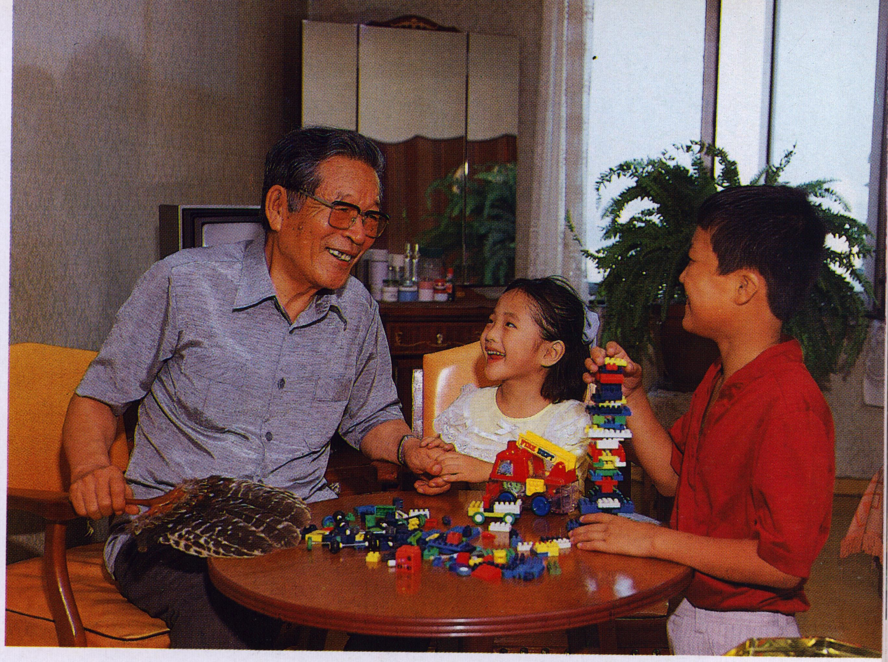
1957년 11월부터 함경남도예술단 배우.

1961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72년 3월부터 평양모란봉예술단 배우.

1972년 4월 12일 공훈배우칭호를 수여받음.

1987년 12월부터 피바다가극단 연출가.



손자, 손녀와 함께 있는 한진섭

나는 오늘까지 40여년간 연극계에서 배우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해방전 나의 배우생활은 설음과 눈물뿐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나라를 해방시켜주신후에야 비로소 나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나는 지금도 어버이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옵던 영광의 그날을 잊을수 없다.

1963년 10월 26일.

이날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번역극 《네온등밑의 초병》공연을 보아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다.

당시 나는 이 연극의 책임연출을 담당하고 있었다.

극장으로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고한다고 하시며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연극을 보시고나서는 작품의 예술적 형상수준이 높다고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내가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에서 아버지역을 맡았을 때에도, 《민족의 태양》, 《영원한 전우》, 《돌아오지 않은 밀사》 등 혁명영화와 예술영화에 출연했을 때에도 연기를 잘한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84년 5월 16일에 나에게 친히 진갑상을 보내주시였다.

1987년 7월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나를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예술인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한 진 섭





김의용은 동료들과 함께 조선의 명승 모란봉을 찾았다.

1961년 5월 어느날, 비날론공장건설자들과 함흥시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비날론공장준공식을 진행한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고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에 내가 속해있던 함남도립극장 성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가극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공연하였다.

그날저녁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비날론공장준공식을 축하하는 연회장으로 우리 배우들을 불러주시였다. 우리는 연회장에서 축하공연을 하게 되였다.

나의 독창을 들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히 박수를 쳐주시며 한번 더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축하공연이 끝나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무의 노래를 듣고 감동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날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던 나에게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또 육체적 생명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김 의 용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의 주역을 맡은 김의용



새로운 가극의 창조를 위해 열정과 지혜를 쏟아붓고있는 공훈배우 김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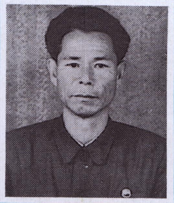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신동복



신동복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청산협동농장 신동복농장원의 집을 찾으시고 그의 가정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1961년 9월)



신동복

1930년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출생.

해방전 머슴살이, 품팔이생활.

1950년 6월 의용군에 입대, 조선인민군에 복무.

1953년부터 조선인민군종합예술단 배우.

1959년부터 당시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 민주선전실 실장.

1960년 2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접견.

1962년 남포공산대학 졸업.

1969년부터 당시 평안남도 강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근무.

1981년에 불치의 병으로 사망.

남으로 나간 사람 가족들이 받아안은 사랑



신순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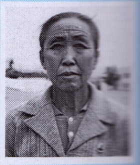
박인옥



강영옥



홍영진



김봉애

청산리라고 하면 우리 공화국북반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난 농촌마을입니다. 이 농촌마을에 바로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 방문을 열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새 집들이를 하는 날에 오시여 우리 집 살림을 보살펴주시는 사진이 벽에 모셔져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1961년 가을 문화주택으로 이사하던 그날에 있은 일이 어제런듯 되살아납니다.

그해 9월 2일 아침이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늑한 야산기슭에 일떠선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받고 이사온 우리 집을 몸소 찾아주시였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집이 마음에 드는가고 하시며 방바닥에 새로 한 장판도 만져보시고 천반지도 살펴보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엌으로 내려가시여 찬장이며 가마며 된장, 간장독들을 살펴보신후 문화주택을 쓸모있게 잘 지은데 대하여 기뻐하시였습니다.

1961년 11월 13일 해질무렵이였습니다. 이날 또다시 우리 집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헛간을 지을 자리를 손수 잡아주시고 닭우리와 토끼우리, 돼지우리를 지을 장소까지 친히 정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개도 기르고 양도 기를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집을 다녀가신 그날밤 우리는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흥분에 젖은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두차례나 우리 집을 찾아주신것은 참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이며 영광이요. 친부모도 주지 못한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으니 남조선에 두고온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지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식구들은 집없이 광산촌을 류랑했소. 아버지도 광산에서 상처를 입고 남의 집 방아간에서 세상을 떠났소. 그 부모들이 오늘 이 좋은 집에서 산다는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소…》

남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것이였습니다.

나도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목이 메여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습니다.

안해 한순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개성방직공장에서 일하는 신순덕녀성을 친절히 만나주시였다. (1972년 9월 14일)



신 순 덕

1920년 3월 3일 평양시에서 출생.

1957년 8월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72년 9월 14일 또다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하여 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음.

현재 공로보장.

동무들이 월남한 남편을 그리워한다는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남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 굳세게 사회주의건설에서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김 일 성



손자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있는 신순덕

저의 성은 신가이며 고향은 평양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1950년 미국놈들의 원자탄위협에 못이겨 남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남으로 나간것이 마음에 꺼리여 어느 한 지방도시로 거처를 옮긴후 성을 김가로 고치고 고향은 서울이라고 하였으며 남편은 죽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량심을 속인 죄책감으로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1957년 8월 24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제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그날 저희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수령님께서는 남으로 간 사람 가족들의 생활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고나서 이렇게 만났으니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처럼 소탈하시고 그처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그분앞에서 저는 더이상 제 량심을 속이고 앉아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쏟아져내려 말을 이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 딸자식을 달래듯이 울지 말고 어서 이야기하라고 다정히 타이르시였습니다.

저는 북받치는 울음을 참고 그분께 죄다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령님! 저는 이날이때까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성은 김가가 아니고 신가입니다.

저의 고향은 서울이 아니고 평양입니다.

저의 남편은 죽은것이 아니라 월남했습니다.》

저의 말씀을 다 듣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창밖을 내다보시였습니다.

이윽고 그분께서는 미국놈들의 원자탄위협에 못이겨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끌려갔다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건강하여 일을 잘하라고 거듭 격려해주시고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였습니다.

공장로동자들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시며 차에 오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더니 되돌아 저의 앞으로 걸어오시는것이였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뭉클하고 뜨거운 그 무엇이 온몸에 확 퍼져감을 느꼈습니다.

《안심하고 건강하여 일 잘하시오. 동무는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의 손을 다시금 힘있게 잡아주시였습니다.

《수령님!…》하고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한채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말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그날의 그 감격, 그 행복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것입니다.

신 순 덕

직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고있는 박인옥



손녀의 손풍금독주를 감상하고있는 박인옥. 그의 마음은 더없이 즐겁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성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앞줄 왼쪽 첫번째 박인옥. 1960년 9월 21일)



박 인 옥

1927년 1월 7일 개성시에서 출생.

1960년 9월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73년 10월 21일 공훈방직공칭호를 수여받음.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하여 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음.

현재 공로보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성방직공장 로동자들(둘째줄 왼쪽으로부터 네번째 강영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72년 9월 14일)



강 영 옥

1938년 2월 11일 개성시에서 출생.

1972년 4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음.

1972년 9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88년 9월 전국영웅대회에 참가.

현재 개성방직공장 수출2종합작업반 반장.

저는 왜놈의 학정밑에서도 살아보고 리승만통치하에서도 살아본 사람입니다.

악착하고 저주로운 그 세상에서 저는 눈물과 설음으로 아까운 꽃나이 처녀시절을 다 흘러보냈습니다.

그러한 제가 참된 인생을 되찾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넓은 품에 안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저를 나라의 주인으로 높이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였을뿐아니라 저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쟁때 남편이 남으로 나간후 어린것들만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저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좋은 집과 일자리도 마련해주도록 하시고 아이들을 돈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공부시킬수 있도록 은혜로운 조치도 취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천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몸소 찾아오시여 저의 가슴속에 남모르게 안고사는 괴로움마저 말끔히 가시여주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별로 크게 한일도 없는 저에게 공훈방직공칭호와 함께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도록 하시였고 친히 저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뜨거운 은정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품은 진정 우리모두가 대를 이어가며 안겨살 영원한 사랑의 품입니다.

박 인 옥



직포공에게 기능전습을 주고있는 강영옥

저의 집에는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찍은 귀중한 한장의 사진이 모셔져있습니다.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 직포공들과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를 때면 어느덧 저의 가슴속엔 잊을수 없는 그날의 그 감격이 다시금 뜨겁게 안겨오군합니다.

그날은 1972년 9월 14일이였습니다.

이날 두번째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제가 일하는 일터에도 친히 들리시였습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의 기대앞에 다가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필필이 쏟아져나오는 천을 손수 만져보시며 천을 잘 짠다고, 그동안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졌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이 몰라보게 자랐는데 기념사진이나 한장 찍자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습니다.

순간 저는 진정할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전쟁시기 미국놈들한테 속아 남으로 끌려나간 오빠때문에 남몰래 고민하고있던 저에게 새삶의 밝은 빛을 안겨주시고 나라의 어엿한 녀성영웅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은 또 저를 자신의 곁에 부르시여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다고 생각하니 진정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뜨거운 눈물속에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이 담겨져있는 한장의 사진, 저는 이 사진을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갈것입니다.

강 영 옥



전국영웅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날 차비를 하고있는 강영옥



가족들과 함께 출근길에 오르는 홍영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로력적 위훈을 떨치고있는 숨은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86년 2월, 셋째줄 오른쪽 다섯번째 홍영진)



홍 영 진

1937년 11월 6일 개성시에서 출생.

1957년 8월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86년 2월 6일 또다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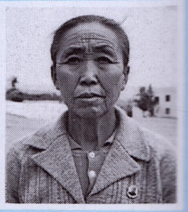
1986년 1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음.

1988년 9월 전국영웅대회에 참가.

현재 개성방직공장 직포공.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리의 남으로 나간 사람 가족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1962년 1월 29일)



김봉애

1928년 11월 25일 황해남도 연안군에서 출생.

1959년 5월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66년 11월 8일 또다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국기훈장 제2급을 비롯하여 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음.

현재 황해남도 연안군 풍천협동농장 고문관리위원장.

저의 앞가슴에는 언제나 영웅의 금메달이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저는 이 금메달을 바라볼 때마다 이름없는 방직공이였던 저를 나라의 녀성영웅으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뜨거워지군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저를 두차례나 친히 만나주시고 저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친어버이심정으로 살뜰히 보살펴주시였을뿐아니라 건강하여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습니다.

어찌 그뿐이였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 전쟁시기 미국놈들의 원자탄위협에 못이겨 남으로 끌려나간 오빠때문에 늘 마음 쓰고있던 저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언제나 밝고 희망에 넘쳐 생활해나가도록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참된 삶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응당 해야할 일을 한 저에게 큰일을 했다고 하시며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까지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에게만 차례진 행복이며 영광이겠습니까.

저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받드는 충성의 한길에서 영웅의 금메달을 더욱 빛내여나갈것입니다.

홍 영 진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기대앞에서 충성의 마음을 비단필에 수놓아가는 홍영진



남으로 나간 사람 가족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1959년 5월 22일, 왼쪽으로 첫번째 김봉애)



황해남도안의 남으로 나간 사람 가족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가슴에 비낀 그늘을 말끔히 가셔주시며 희망찬 새생활의 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1966년 11월 9일)

1966년 11월,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난 전쟁시기 미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남으로 끌려나가고 어린것들만 데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김봉애녀성을 비롯한 여러 녀성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주석께서는 그들의 살림살이형편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나서 가정에 불행을 들씌운 원쑤는 미제국주의자들이라고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굳센 마음으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어머니들도 일을 잘하여 공산주의어머니가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김봉애고문관리위원장

귀국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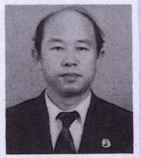

김은순


박삼순


로병우


리룡암


고근영


리청


김기하


리춘미

나는 1959년 5월 22일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친히 우리들을 만나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주인없이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는가, 가족들은 몇이나 되며 남편은 무슨 일을 하다가 남으로 나갔는가고 하나하나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남편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여 가슴속에 맺히고 쌓였던 아픔을 가시여주는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우리들의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 불행과 고통으로 여기시며 그토록 마음쓰시는 그분의 고마우신 은정에 목이 메여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을수가 없었다.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모두 건강한 몸으로 일을 잘하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시고나서 우리 군을 떠나가시였다.

그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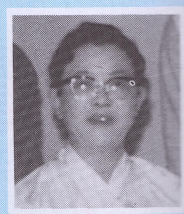
하지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그날의 그 사랑과 믿음은 오늘도 내 가슴속에 삶의 기둥으로 높이 솟아있고 그날에 주신 그분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나를 참된 삶의 길로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김봉애


농장을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꾸리기 위하여 일군들과 협의회를 하고있는 김봉애고문관리위원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경축하는 연회에 참가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위원장 김은순을 접견하시였다. (1961년 9월)



김은순

1910년 9월 17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출생.

1930년 일본 도쿄로 건너감.

1945년 10월부터 재일조선인련맹 중앙본부 부녀회장.

1946년부터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초대위원장.

1955년 5월 총련결성후 의장단성원으로 사업.

1961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 재일본조선인 축하단 단장으로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61년 10월부터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965년 9월 15일 불치의 병으로 사망.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 새 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줄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민족적의무로 생각합니다.》

김 일 성



1987년 3월 청명을 한주일앞둔 어느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시 신미리의 애국렬사릉에 몸소 찾아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렬사릉을 돌아보시다가 나의 어머니묘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묘비에 새겨진 글발을 바라보시던 그분께서는 왜 김은순동무의 직위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 했는가, 김은순동무는 조국에 와서 부위원장을 했지만 총련에서 녀맹사업을 더 오래하였다고 하시면서 한식날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의 직위를 고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새겨져있던 묘비의 글발이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위원장으로 고쳐지게 되였던 것이다.

오래전에 곁을 떠난 어머니를 감회깊게 추억하시며 다시금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을 세월이 흘러간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어머니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친히 치료대책을 세워주시였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도 몸소 보내주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야말로 우리 겨레가 영원히 안겨살 참다운 삶의 요람이며 은혜로운 어버이품이다.

아들 허광현



평양시 신미리의 애국렬사릉에 안치된 김은순의 묘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깃든 선물을 받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 김은순의 자녀들

김은순의 아들 허광현은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 부교수이며 준박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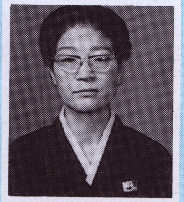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래왕실현을 위한
니이가다현 부인상담회에 참가한 박삼순



조국에 귀국하여 녀맹일군으로 사업하고있는 박삼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에 재일본조선녀성축하단 단장으로 참가한 박삼순(오른쪽)을 접견하시였다. (1971년 10월 7일)



박삼순

1924년 2월 24일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출생.

1929년 8월 일본으로 건너감.

1935년 일본 야마구찌현 오기노야마소학교 중퇴.

1947년 7월까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야마구찌현 오노다시 아리호분회 련락원.

1948년 11월까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니이가다현 우오누마찌부총무부장.

1971년 2월까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니이가다현본부 위원장.

1971년 9월까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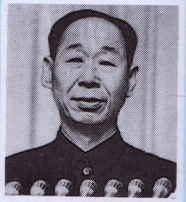
1971년 9월 11일 조국에 귀국.

1971년 10월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71년 11월부터 조선민주녀성동맹 평양시위원회 부위원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본에서 제141차로 귀국한 로병우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1966년 11월 20일)



로병우

1912년 11월 12일 평안북도 동림군에서 출생.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감.

1931년부터 일본 오까야마현, 히로시마현, 나가사끼현에서 토목로동.

1947년부터 재일조선인련맹 오까야마현본부 총무부장.

1950년부터 재일조선인련맹 오까야마현 상공부장.

1954년부터 구월서방 초대사장.

1959년부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도꾜본부 위원장.

1963년부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1966년 9월 141차로 귀국.

1966년 11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67년 11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건설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87년 1월 27일 병으로 사망.

1971년 10월 7일, 그날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가 개막된지 3일째되는 날이였습니다.

재일본조선녀성축하단 단장으로 이 대회에 참가한 저는 회의휴식시간에 우리 축하단성원들과 함께 휴식하고있는데 한 간부가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울렁이는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곳으로 갔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어서 의자에 앉으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신다음 저에게 일본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가족은 몇이나 되며 조국에 누가 있고 일본에는 누가 있는가고 친자식을 만나신듯 차근차근 물어주시였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품과 고매한 덕성, 위대한 포옹력에 감동되여 어려움도 다 잊고 속에 품은 사연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저와 축하단성원들은 눈물이 앞서 어찌할바를 몰라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울지 말라고, 일본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조국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마음놓으라고, 우리 함께 일을 잘해보자고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지도자도 많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인자하시고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분을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박삼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사진을 보고있는 박삼순

누구든지 우리 집을 찾는 사람이면 응접실에서 걸음을 멈추군합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의 아버지와 담화하시는 사진이 벽에 모셔져있기때문입니다.

수십년세월이 흘러갔어도 언제나 그날의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이 영상을 우러를 때면 저는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1966년 11월 20일.

그날은 일요일이였습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친히 우리 집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조국에 귀국한지 두달도 못되는 우리 집에 그분께서 찾아오실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의 아버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방이 춥지 않는가, 이 집이 살기가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참 좋은 집이라고 하자 그분께서는 한시름을 놓으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와 동생들도 공부를 잘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고무하여주시였습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일요일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꽃펴난 날이였으며 우리 가정이 세상에 다시 태여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영원히 이날을 잊지 않을것입니다.

아들 로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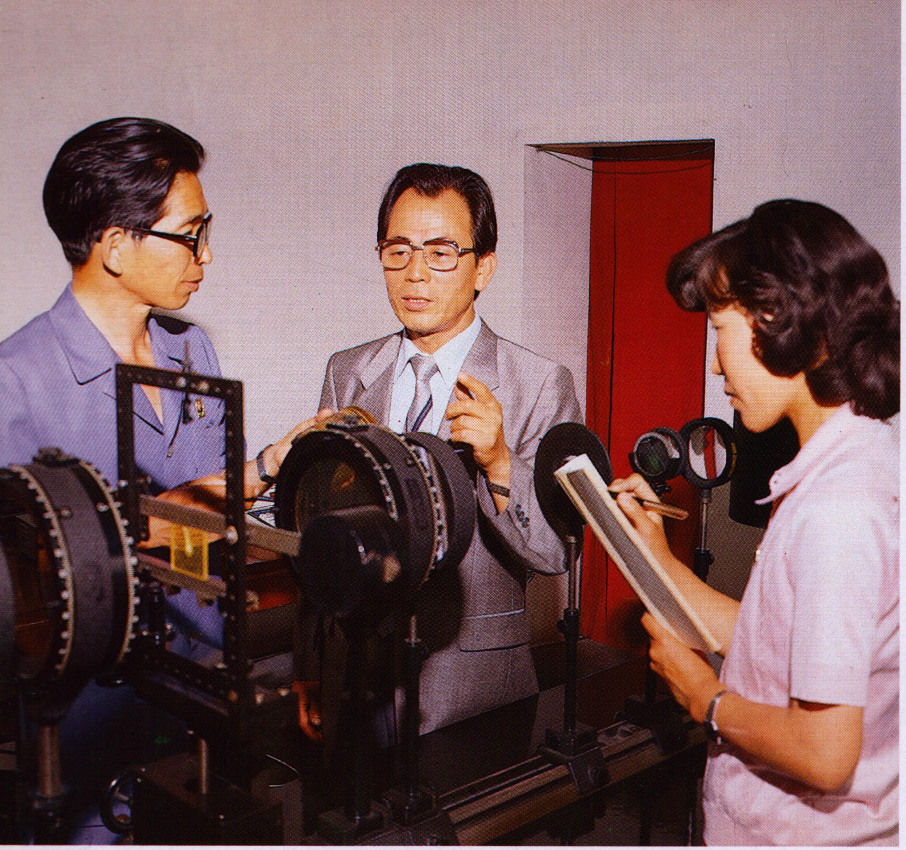
평양시 신미리의 애국렬사릉에 안치된 로병우의 묘



조국의 품에 안겨 사는 오늘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있는 로병우의 안해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공학부 교원인 로병우의 둘째아들 로인평(가운데)



과학연구사업을 지도하는 리룡암소장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토론하는 리룡암(1986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본에서 제1차로 귀국한 리룡암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1959년 12월 29일)



리 룡 암

1934년 1월 28일 경상북도 영천군에서 출생.
1953년 7월 경상북도 대구시 대구제3중학교 중퇴.
1953년 9월 일본 도꾜로 건너가 자동차조수로 일함.
1957년 3월 도꾜조선고등학교 졸업.
1959년 9월까지 일본와세다대학에서 공부.
1959년 12월 제1차로 귀국.
1959년 12월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60년 8월 당시 김책공업대학 졸업, 그후 과학원 연구사, 실장.
1979년 12월 4일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음.
1986년부터 과학원 암석력학연구소 소장.



제1차로 귀국하여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재일조선학생(왼쪽 고근영)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1959년 12월 21일)



고근영

1947년 2월 24일 전라남도 제주도 구좌면에서 출생.
1957년 도꾜 조선인 제5초급학교 졸업.
1959년 도꾜 조선중고급학교 졸업.
1959년 12월 16일 제1차로 귀국.
1959년 12월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62년 평양초등학원 졸업.
1966년 평양고등물리학교 졸업.
1971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1971년부터 현재까지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연구사.



박사칭호를 받은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있는 리룡암

내가 조국의 품에 안긴지도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였던 그날을 잊을수 없다.

제1선으로 귀국한 우리가 평양에 와서 새 문화주택을 받고 기쁨에 넘치던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집에 찾아오시였다.

그분께서는 새살림을 보자고 하시면서 나를 앞세우고 부엌으로 들어서시였다. 찬장이며 아궁까지 보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가정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은 없는가, 춥지는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침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이만하면 부부가 생활하기는 괜찮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순간 나는 일본에 있을 때 고학을 하면서 단간방 하나도 없었던 이국살이 설음이 북받쳐 흐느껴 울고말았다.

나의 심중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집도 받고 부부가 희망대로 대학에 편입하였으니 공부를 잘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후보원사, 교수, 박사로 되였으며 안해는 의사가 되였다.

날이 갈수록 나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불같은 마음이 더 세차게 끓어오를뿐이다.

리룡암



노래속에 웃음속에 행복이 넘쳐나는 고근영의 단란한 가정

지금도 어제일처럼 눈앞에 선합니다.

그날은 1959년 12월 21일이였습니다. 이날 나는 귀국동포들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나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 꽃다발을 올리였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습니다. 감격과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여 흐느끼며 어깨만 들먹이는 나를 다정히 안아주신 그분께서는 울지들말라고, 일본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이젠 조국에 왔으니 마음껏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나를 껴안으시고 환호하는 귀국동포들에게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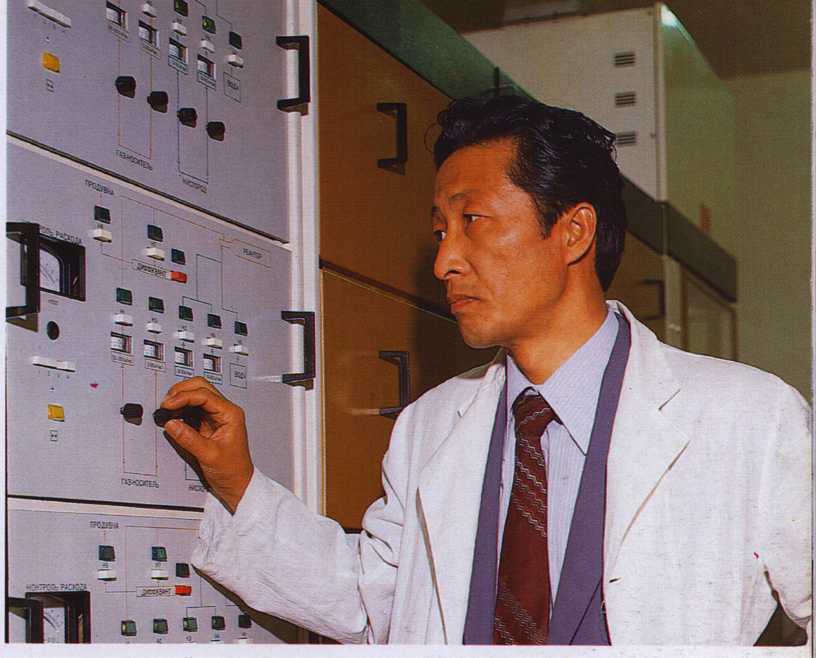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평양초등학원과 고등물리학교를 거쳐 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사로 자라났습니다.

행복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데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안은 행복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신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에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근영



반도체실험실에서 연구사업을 하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고근영



학생들속에 들어가 공화국정부의 시책을 해설해주고있는 고근영



미래의 화가로 자라나고있는 맏아들 용진의 재능을 놓고 기쁨에 넘쳐있는 리청의 가족

1959년 12월 29일.

오매에도 그리웠고 마음속으로 그토록 흠모하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우리 가정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귀국하여 행복한 새생활을 시작한 우리 집에 들리시여 헤여졌던 친자식을 만나신듯 친근하게 우리와 자리를 같이하여주시였다. 그분께서는 일본에서 추운데 오기 수고했다고 하시며 집이 춥지 않는가, 방은 몇칸인가, 식구는 몇명이나 되며 일본에는 언제 건너갔는가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물어보시였다. 그리고 저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외가친척들이 남조선에 있다는것을 아시고는 조국이 통일되면 그때는 다 만날수 있다고 하시면서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두고 그처럼 가슴아파하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를 보시며 일본에서 어느 학교에 다니였는가,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몇이며 무엇을 희망했는가고 물어보시였다. 그리고 맏누이와 둘째 누이, 동생들은 무엇을 하고있는가고 일일이 알아보시고나서 모두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훌륭한 역군이 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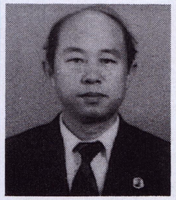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또 어데 있으랴.

저는 이 사랑, 이 은덕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갈것이다.

리 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본에서 제1차로 귀국한 리청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1959년 12월 29일)



리 청

1943년 3월 15일 일본 효고현 고베시 나다구에서 출생.

1955년 일본 효고현 고베조선소학교 졸업.

1958년 3월 일본 효고현 고베조선중학교 졸업.

1959년 12월 제1차로 귀국.

1959년 12월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61년 8월 평양외성고급중학교 졸업.

1966년 평양미술대학 졸업, 평양예술극장 화가.

1968년 12월부터 평양수예연구소 미술창작실 실장.

1988년 10월부터 평양수예연구소 부기사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본에서 제161차로 귀국한 기업가 김기하와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1971년 11월 5일)



김기하

1917년 8월 28일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출생.

1938년 5월 일본 도쿄로 건너감.

1941년 9월까지 일본 도쿄에서 로동.

1952년 7월까지 일본 도쿄 시미즈제작소에서 로동.

1971년 10월초순까지 일본 도쿄 시니가와꾸 꼬리쯔고세이회사 사장.

1971년 10월 24일 161차로 귀국.

1971년 11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71년 12월부터 애국편직물공장 부지배인.

1972년 3월부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애국편직물공장 부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기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본에서 제80차로 귀국한 리춘미가정을 방문하시였다. (1964년 1월 5일)



리 춘 미

1939년 9월 27일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에서 출생.
1951년 9월 경상남도 진양군 정촌면 례하국민학교 졸업.
1956년 3월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조선중학교 졸업.
1959년 3월 일본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
1961년 12월 조선대학교 단기교원양성소 졸업.
1963년 10월까지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제4초급학교 교원.
1963년 11월 제80차로 귀국.
1964년 1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음.
1968년 9월부터 평양모란봉제1녀자고등중학교 교원.

1971년 10월 24일 161차귀국선으로 청진항에 도착한 나는 따사로운 품에 안아준 어머니조국을 위해 한몸바쳐 일하리라 마음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1년 11월에 저를 몸소 만나주시고 저의 애국적인 소행을 높이 평가하여주시였으며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로 나는 애국편직물공장 부지배인으로 일하고있으며 1972년 3월에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았다.

지난날 같으면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나는 해방전 고향마을에서 소작농으로 일하였다. 3대로 물려받은 소작농으로 잔뼈가 휘였으나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었던 나는 20대의 청춘나이에 고향마을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나는 여러가지 일을 다 해보았으나 형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나는 비로소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새삶을 누리게 되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은 우리 귀국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이다.

김 기 하



은혜로운 손길은 이역만리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던 잊지 못할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는 리춘미



우리집 방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저와 담화를 하시는 사진이 모셔져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던 영광의 그날을 잊을수 없습니다.

1964년 1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우리 집을 찾아오시였습니다. 그날 그분께서는 먼저 부엌에 들어서시여 석유곤로가 말을 잘 듣는가, 간장과 된장은 어디서 공급받는가, 생활비는 얼마나 타는가고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세히 알아보시고나서 저에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조선중고급학교와 단기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교원생활을 하다가 귀국하였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범대학에서 공부하라고, 공부를 해야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와 함께 발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녀교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저는 교원생활을 하면서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통신)에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벽에 모신 그분의 영상을 우러르며 깊이 감동되군합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민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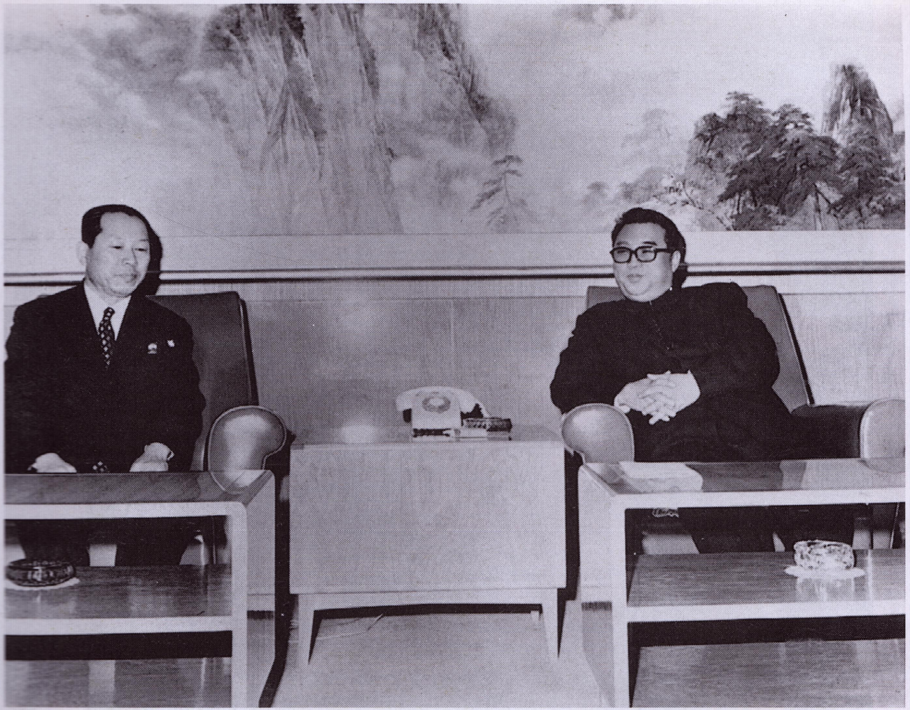
리 춘 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방문한 총련 한덕수의장과 리계백 부의장을 만나주시였다.(1975년)

《사람들사이의 혈육의 정이라는것은 매우 깊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동포, 형제, 자매들이 조국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특히 조국에 온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설레이며 감개무량해지군합니다.》

김 일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방문한 총련 리진규 부의장을 접견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1972년 1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방문한 총련 박재로 부의장을 따뜻이 만나주시였다.(1973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조국을 방문한 총련 한덕수의장을 친히 만나주시였다.(1985년 5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조국을 방문한 총련 리계백부의장을 따뜻이 만나주시였다.(1985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원들과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원들을 따뜻이 만나주시였다.(1972년 8월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1974년 6월)



조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녀성들로부터 만수축원의 인사를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제1차 재일동포녀성조국방문단 성원들을 반갑게 만나주시였다.(1973년 12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여 재일본조선인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이 드리는 편지를 받으시고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1980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상공인련합회 회장인 량종고선생을 친히 만나주시였다.(1973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총련 금강산가극단 려운산단장을 따뜻이 만나주시였다.(1985년 2월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고문인 니시아라이병원 김만유원장과 가족일행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86년 4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부회장인 현승배 박사를 친히 접견하시였다. (1987년 4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재일조선상공인 안상택부부일행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87년 4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방문한 윤이상선생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1987년 10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총련의 여러 대표단들과 상공인들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88년 4월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배달신보》 발행인이며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최홍희선생을 따뜻이 만나주시였다. (1981년 10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 참가한 총련간부들을 만나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 (1986년 12월)



사랑을 초석으로
믿음을 기둥으로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세워주시고
민족의 존엄을 누리에 떨쳐주신
아, 우리 수령님

그분을 높이 모시여
일심단결의 위력을 떨치며
인민이 가고
조국이 가고
력사가 펼쳐지나니

만대에 빛날
주체의 내조국을 이끄시는
그분은 우리의 행복
그분은 만민의 영광
아, 우리 수령님
위대한 **김일성**주석!